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21호 【루계 제25099호】 주체104(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삼지연군 감자농사에 력량을 총집중

량강도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량강도에서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군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게 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량강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삼지연군의 감자농사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다른 단위들에 일반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입니다.》

주체102(2013)년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산혁명전적지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야 한다고 하시며 감자농사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량강도에서는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일군들은 여러차례 현지답사와 협의회를 진행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한데 이어 그 관철에로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도에서는 삼지연군 농장들의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명백히 세우고 도급기관들과 혜산시의 시급기관, 공장, 기업소들, 군들의 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수백정보에 달하는 습지대와 진흙땅에 대한 흙깔이를 진행하였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농사차비와 감자심기 등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삼지연군이 감자농사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영농지도를 심화시켰다.

삼지연군에서는 300여정보에 달하는 면적에 배수로, 승수로치기를 진행한데 이어 내부에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수십대의 다기능토양갈이기계와 V형들춰갈이기계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제작하였다.

삼지연군을 전국이 도와줄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내각과 농업성, 체신성, 국가관광총국, 륙해운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들에서 감자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그리하여 삼지연군에서는 지난해 100년래 처음 보는 왕가물이 들이닥친 불리한 조건에서도 감자농사를 잘 지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지난해 삼지연군의 감자 정보당 평균수확고는 최고수확년도에 비해 1.3배로 늘어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러한 성과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의지를 안고 떨쳐나서면 삼지연군이 감자농사에서 얼마든지 본보기단위로 될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최근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해 도가 또다시 들끓고있다.

변덕스러운 일기가 지속되고 습지대와 비탈밭으로 이루어져있는 삼지연군의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서 감자농사를 잘하자면 토지개량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도의 일군들은 토지개량사업을 보다 통이 크게 진행하는것과 함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도와 삼지연군 해당 부문 일군들이 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포전들에 대한 현지답사와 토지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바람막이숲조성, 포전도로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맞게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있다.

삼지연군의 농장들에서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농업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하여 농업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 10여년간 삼지연군과 백암군에서 수천정보의 토지를 개간한 경험을 가지고있는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이 포태지구에 전개하여 토지개량전투를 본때있게 들이대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혜산시와 군들에서 달려온 돌격대원들은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공수정소, 종축장건설을 끝내고 돼지목장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건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삼지연군에서는 군의 모든 운수수단을 총동원하여 1만5 000t의 니탄을 포전에 실어내기 위한 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또한 다수확품종의 무비루스감자종자를 원만히 공급하기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이미 그 우월성이 확증된 대홍단식과학농법을 받아들여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성, 중앙기관들에서 삼지연군 농장들의 농업생산건물들을 일식으로 건설하여 완공하며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당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적극 내밀고있다.

삼지연군에서는 감자농사와 함께 농장들의 살림집들과 농업생산건물들을 더 잘 꾸려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방대한 건설도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군에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의의있게 진행하고 감자농사를 보다 높은 과학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들도 토의하게 된다.

또한 삼지연군의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감자산지들사이의 사회주의경쟁도 벌어지게 된다.

군이 당의 은덕으로 무릉도원으로 보다 훌륭히 꾸려지고 해마다 감자농사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면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연군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특파기자 전철주

올해농사결속을 위한 화선선동 활발

남포시당위원회에서

남포시당위원회에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시에서는 시의 농사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온천군에 로력과 기재를 집중시키고 선전선동력량을 파견하여 전투적분위기를 고조시킨 결과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여 벼탈곡실적이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당면한 벼단꼬들이기와 탈곡을 앞두고 로력과 운수수단을 농촌에 집중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일군들이 농업생산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자자구구 학습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불타는 결의를 가다듬고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전투의 앞장에서 대중을 힘있게 이끌고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올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이 화선식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 실효를 높이고있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일군들이 벼탈곡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는 들끓는 현실에 뛰여들어 직관선전, 예술선동, 구두선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농장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온천군의 여러 농장에 나간 시당위원회일군들과 시의 학습강사들, 직외강연강사들은 농장원대중과 한데 어울려 낟알털기를 진행하면서 쉴참이면 화선식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특히 방송선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며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시의 공장, 기업소방송선전차들과 온천군의 방송기재들이 집중되고 마이크를 틀어쥔 방송원들이 당정책과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격동적인 선동을 들이대고있다. 이와 함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전사의 념원》, 《장군님은 조선의 운명》, 《가리라 백두산으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와 같은 혁명적인 노래들로 대중의 열의를 한껏 높여주고있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당보를 통한 교양사업에도 응당한 주목을 돌려 정론 《위대한 우리 인민》을 포전방송을 통하여 련속 내보냄으로써 농장원대중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들끓는 현지에 나가 벼단꼬들이기와 탈곡진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는 한편 농촌에 전력과 운반수단을 집중시키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며 올해농사를 빨리 결속하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진행되는 집중적인 경제선동사업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시의 학습강사들과 직외강연강사들이 농장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일도 같이하고 심금을 울리는 화선선동을 들이대며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온천군당위원회의 당선전일군들과 군안의 선동원들이 농장원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벼단꼬들이기와 벼탈곡을 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전투적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당일군들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가운데 낟알털기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질좋은 포장용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단천마그네샤공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북청사과연구소가 훌륭히 일떠섰다

온 나라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룡전과수농장지구에 북청사과연구소가 훌륭히 일떠섰다.

이 연구소가 일떠서게 됨으로써 정보당 사과생산을 늘이고 품종별사과맛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재배기술을 과학기술적으로 확립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몇해전 룡전과수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과맛을 첨단과학실험기구를 리용하여 그 리치를 밝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과연구소를 내울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룡전과수농장지구에 일떠서게 될 사과연구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북청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울 불같은 마음을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말은 대상공사를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떠세웠다.

농업성 일군들이 연구소건설을 자신들의 일로 여기고 적극 도와나섰다. 그들은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내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현장에 수시로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실험설비들과 전자설비 등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국가계획위원회와 체신성 등 여러 단위들에서 연구소건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정보당 사과생산을 늘이고 품종별사과맛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재배실, 품종도입 및 보존실, 분석실, 정보실 등이 그쯘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연구소에서는 사과맛이 좋은 여러가지 무비루스사과나무 접그루품종들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된다. 그리고 무비루스사과나무모생산과 재배기술, 여러가지 병해충구제를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사과나무들의 영양관리와 기상기후조건, 토양조건 등 사과맛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선진적인 재배기술과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당의 크나큰 은정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정보당 사과생산량을 늘이고 사과맛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새로 일떠선 사과연구소는 앞으로 북청지방에서 맛좋고 수확고가 높은 품종의 사과나무들을 생산하여 퍼치게 된다. 그리고 다수확품종의 사과나무들을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순화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게 된다.

본사기자 정성일

도로와 강하천, 도시의 면모를 일신

자강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철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거두었다.

도국토관리총동원지휘부의 일군들은 시, 군들을 맡고 내려가 이번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도로의 기술개건, 강하천정리, 나무종자채취, 도시와 마을꾸리기 등 계획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폭확장, 구배낮추기, 곡선펴기, 옹벽쌓기, 물도랑정리, 안전보호말뚝세우기 등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도에서는 차굴공사와 령길도로기술개건공사를 다그쳐 끝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만포시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과 시, 군들에서 달려나온 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수십m나 되는 차굴콩크리트피복공사와 수km의 도로폭확장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책임일군이 자주 나와 차굴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세멘트, 철근을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었다.

강계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장자강을 끼고 뻗어나간 강안도로콩크리트포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였다. 룡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1 500개의 안전보호말뚝을 도로들에 세웠다. 자성, 초산, 우시군을 비롯한 오지군들에서는 령길들의 옹벽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강계—만포, 강계—위원, 만포—중강도로를 비롯하여 시, 군을 련결하는 74.9km에 달하는 도로들의 견고성과 문화성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였다.

도에서는 도로기술개건과 함께 다리건설을 힘있게 내밀었다.

중강군 호례천다리, 초산군 송묘1, 2다리, 량림군 신원1, 2다리를 비롯하여 도적으로 18개의 콩크리트다리가 새로 건설되여 인민들에게 교통상편리를 보장해주고 교통운수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도에서는 강하천정리공사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시, 군들에서 압록강, 장자강, 충만강을 비롯한 큰강들과 초산천, 우룡천, 월명천을 비롯한 많은 하천들의 제방보수공사와 장석쌓기공사가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강하천정리공사에 동원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헌신적투쟁을 벌려 51.7km구간에 118만㎥의 장석을 쌓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강계시에서는 홍주지구의 장자강제방장석쌓기공사를 와닥닥 다그쳐 끝냈다. 우시군에서는 충만강기슭에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3천여m의 제방을 새로 쌓고 제방우로 강안도로를 냈다. 그리고 제방경사면을 따라 4만㎥의 장석을 쌓아 군소재지와 충만강하류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켰다. 초산군과 화평군에서도 계획한 하천제방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강하천정리공사에서는 강계시와 희천시, 우시, 고풍, 초산, 송원군이 모범을 보이였다.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도시와 마을을 사회주의선경답게 더욱 환하게 꾸려놓았다.

강계시는 물론 중강군, 만포시, 위원군, 초산군, 우시군을 비롯한 압록강을 낀 시, 군들에 현대적인 단층문화주택들이 일떠서고 군소재지들이 지역적거점답게 더욱 아름답게 꾸려졌다.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가 높이 발휘되는 속에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또 한기의 발전기조립을 끝냈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안고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과감한 공격전으로 1호발전소 1호발전기조립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2호발전소 1호발전기조립이 끝난데 이어 1호발전소 1호발전기조립이 결속됨으로써 가까운 시일에 발전설비들에 대한 시운전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지금 있는 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강원도당위원회에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발전소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끝내도록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건설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발전소건설지휘부에서는 전반적인 대상공사들이 기본적으로 끝난데 맞게 남은 발전설비조립공사와 물길굴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하기 위한 공사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있다.

지휘부일군들은 1호발전소 1호발전기조립공사가 힘있게 벌어지는 현장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지휘부에서는 자재보장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발전기조립에서 공정별계획이 드티지 않게 여러가지 지구장비들과 공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 조립속도를 부쩍 높이도록 하였다.

1호발전소 1호발전기조립공사를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설비조립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나갔다.

일군들은 단위의 특성에 맞게 공정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날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특히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발전기조립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발전기조립을 맡은 로동자들은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이고 조립에 필요한 지구장비들을 자체로 마련하여 설비조립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1호발전기조립을 끝낸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도송배전부에서는 1호발전소 1호발전기와 2호발전소 1호발전기가 성과적으로 조립된데 맞게 옥외변전소 주변압기조립공사를 끝내고 옥내배전설비들에 대한 조립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완공된 원산군민발전소에서 전력증산의 고르로운 동음이 울려퍼질 그날이 앞당겨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년간 용접레루늘이기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함흥철도국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를 받아안은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년초부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힘찬 투쟁을 벌려 올해 용접레루늘이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매일 수km의 용접레루늘이기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진군에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한 철도국일군들이 철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단없이 계속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책임일군들부터가 용접레루늘이기가 진행되는 현장들에 내려가 대중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심어주며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이와 함께 침목과 교착품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해당 단위들에서 작업에 지장이 없게 생산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용접레루늘이기에서 높은 실적이 기록되도록 하고있다.

금야—풍남철길 용접레루늘이기를 맡은 함흥철길대보수대 기계화기동1, 2중대, 함흥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기동1, 2중대, 영광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기동1, 2중대의 전투원들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지하전동차를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는데서 위훈을 세운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처럼 살며 일해갈 의지를 안고 만단의 준비밑에 립체전으로 구간들에 대한 용접레루늘이기를 짧은 시간에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그리하여 렬차들의 정상운행을 보장하면서 매일 수백m의 용접레루를 늘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단천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기동1, 2중대와 광천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기동1, 2중대, 신북청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기동1, 2중대의 전투원들도 맡은 철길구간의 용접레루늘이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용접레루늘이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이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합리적인 지구와 장비들을 창안제작하여 작업에 적극 리용하면서 용접레루늘이기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원산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기동1, 2중대, 고산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기동1, 2중대, 이천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기동1, 2중대의 전투원들도 매일 침목교체와 자갈다짐을 비롯한 작업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며 용접레루늘이기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다.

함흥철길용접대와 단천철길용접대, 원산철길용접대의 전투원들도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용접레루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영웅적투쟁과 자랑찬 위훈으로 맞이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만족함이 없이 헌신적으로 투쟁해가는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에 의해 용접레루늘이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정 론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위대한 인민에게는 자기의 위대한 길이 있다.

길, 력사의 모진 광풍을 헤치며 이 세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생눈길우에 첫 자욱을 내며 오늘에로 이어져온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였던가.

올라선 승리의 언덕에서 또다시 솟구쳐오를 더 높은 승리의 령마루를 바라보며 대진군의 신들메를 백배, 천배로 조이는 이 시각 위대한 우리 당만을 따라 또다시 가고갈 신념과 영광의 억만리를 내다보는 우리의 심장은 무엇으로 고동치고있는가.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천만의 심장이 터치는 하나의 신념이다.

저 마두산의 깊은 수림에 항일선렬들이 새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의 글발과도 같이 오늘의 우리 세대가 심장의 더운 피로 력사의 벽에 아로새기는 삶과 투쟁의 좌표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더욱 억세게 다지는 조선의 혁명가들의 엄숙한 선서이다.

1

뜻깊은 력사의 화폭이 흐르고있다.

당창건 일흔돐의 장엄한 경축광장을 지나 혁명의 최전성기로 맞이할 당 제7차대회를 향해 련속적인 총공격전의 기상을 펼친 내 조국땅에 진군의 나팔소리마냥 높이 울려퍼지는 노래—《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심장이 끓고 들으면 들을수록 천백배 힘이 솟는다. 광풍이 몰아쳐도, 억천만번 죽더라도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우리 당만을 따르고 받들 인민의 신념은 얼마나 많은 의지와 맹세의 노래들을 낳았던가. 그 많은 명곡들가운데서도 가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우리 인민 누구나 즐겨 부르고 제일로 사랑하는 명곡중의 명곡이다. 무엇으로 하여 이 한편의 가요는 천만의 심장에 불길을 지피며 조선혁명이 터치는 뢰성마냥 어제도 오늘도 높이 울리는것인가.

조선대백과사전에는 이 노래의 창작년도가 주체70(1981)년으로 명기되여있다. 당 제6차대회직후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신 인민의 격정, 주체위업계승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해솟는 바다마냥 설레이며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갈 맹세로 가슴 불타던 천만의 모습이 노래의 구절들에 력력히 어려온다.

그때로부터 어언 30여년세월,

우리 당력사의 절반과도 같은 장구한 나날 죽어도 놓지 않은 우리의 붉은기처럼 천만의 심장에 뜨겁게 간직되여온 한편의 명곡이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장엄한 진군길우에 변함없이 우렁차게 울리고있는 이 격동적인 화폭이야말로 대를 이어 한길을 가는 인민의 숨결, 세기와 년대를 이어 영원히 한길을 걷는 위대한 인민의 우렁찬 발구름소리가 아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한길!

쓰면 두 글자, 부르면 한마디이다.

그러나 그것이 안고있는 뜻은 얼마나 크고 깊은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길을 걷는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첫걸음마를 뗀 그 시각부터 인생의 먼길이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가장 참답고 아름다운 인간의 생을 말한다면 그것은 한길일것이다. 단 한번의 인생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길만을 가고가는 인간의 모습처럼 숭고하고 고결한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한길은 신념이고 의리이며 두 길은 배신이고 타락이다.

이 바람, 저 바람에 돛을 달고 이 길, 저 길을 기웃거리는 인생은 본질에 있어서 어지러운 방랑의 삶이다. 그런 인생에는 기어이 가닿아야 할 신념의 포구가 없다. 따뜻한 봄바람아래 순간의 향락은 있을지 몰라도 몰아치는 폭풍우를 뚫고 마침내 맞이하는 승리자의 희열과 긍지는 없다.

한길은 진리이고 정의이다. 부정의에로의 길은 수천갈래여도 정의에로의 길은 한길뿐이라는 말도 있듯이 참된 인간들은 다른 길이 아무리 번쩍이고 현란하여도 심장으로 선택하고 신념으로 걷는 길을 추호의 동요없이 끝까지 간다.

개별적인간의 삶도 이러할진대 수천수만의 운명을 책임진 혁명은 더 말해 무엇하랴. 혁명이야말로 한길을 가야 한다. 진리에 태를 묻고 정의를 위해 존재하며 아름다운 삶들로 충만된 혁명, 이것이야말로 진정 한길의 위업이다. 력사의 천연수림을 헤쳐 인간의 최고리상을 실현해야 하는 혁명은 그자체가 형언할수없이 어렵고 상상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나아가야 한다. 고난이 두렵다고 길을 바꾸고 시련이 모질다고 딴길을 택해서는 언제 가도 승리의 언덕에 다달을수 없다. 유혹의 바람이 분다고 걸어온 길을 버리고 혁명의 대가 바뀌였다고 길마저 바꾼다면 래일의 승리는커녕 이미 이룩한 고귀한 피와 땀의 열매도 지킬수 없게 된다.

한길의 목적지는 《끝까지》이고 그 길에 울리는 구령은 《곧바로》이다. 폭풍이 몰아쳐도 끝까지 가야 하는것이 혁명의 한길이고 시련의 가시덤불이 앞을 막아도 곧바로만 가야 하는것이 투쟁의 한길이다. 그래서 혁명이 간고하고 혁명가의 삶이 쉽지 않다고 하는것이며 바로 그래서 혁명의 승리가 무한히 성스럽고 눈물겹도록 환희로운것이다.

만일 한 나라, 한 혁명에 한길이라는 이름을 붙일수 있다면 그처럼 위대하고 숭고한 위업은 없다. 그것은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의 군상이고 가장 숭고하고 정의로운 위업의 정화이다.

력사의 기적이 세상을 놀래우고있다.

70년의 오직 한길이 인류를 경탄시키고있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의 경축은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의미깊었던가. 전세계가 초점을 맞추었던 지난 10월의 **김일성**광장에서 인류는 무엇을 보았으며 놀라웁도록 인식한 엄연한 사실은 왜 그토록 충격적이였던가.

《자신감으로 충만된 **김정은**령도자의 힘있는 연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광경》, 《일심단결의 일대 과시》, 《상상을 초월하는 조선의 단결력》…

수많은 통신, 방송들이 앞을 다투어 전한 이 전파들에는 하나의 공통된 견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높이 과시되고있는 조선의 단결력에 대한 놀라움과 찬탄이다.

김일성광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단결의 명화폭들을 펼치는 곳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 경축광장에서 세계가 보고 경탄한 조선의 모습에는 또 새로운 힘과 충격이 있었다. 세월의 변천속에서도 추호의 변색을 모른 인민, 대를 이어 한길을 가는 위대한 인민의 모습이였다.

우리 원수님 서계시는 주석단을 향해 경례를 드리며 나아가던 열병종대들의 우렁찬 발구름소리,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그이를 우러러 발을 동동 구르고 만세를 부르며 격정의 대하되여 물결치던 군중시위대렬의 장엄한 흐름…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당창건기념일들을 성대히 경축하던 그때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변함없이 충정의 한길을 가는 인민의 모습은 실로 눈앞의 리익으로 천만번의 선택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로써는 리해할수도 깨달을수도 없는것이였다.

이 바람, 저 바람이 쉼없이 불어치는 이 세계에서 한 세대의 한길도 기적일진대 몇대를 두고 변함없이 가는 조선의 한길, 대를 이어 가는 그 한길이야말로 기적중의 기적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천리라도 만리라도 따르리!

기적과 사변으로 충만된 하늘가에 우렁차게 울려퍼지는 이 메아리속에 조선의 가장 생생한 모습이 있고 한길, 이 부름에 천만권의 책으로도 담을수 없는 모든 승리와 번영의 강력한 해설문이 있다.

대를 이어야 혁명이고 대를 이어야 한길이다. 한 세대, 한 년대기를 한길로 빛내이는것도 자랑스러운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세대에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하여 전세대의 길과 다음세대의 길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중도반단이지 한길이 아니다.

걸어온 장장 70년의 행로우에 또다시 높이 울리는 영원한 한길의 노래, 이것은 조선의 한길이 광활한 래일에로 곧바로 억세게 줄기뻗치는 장쾌한 뢰성이다. 전세대들이 걸어온 한길의 혈맥을 천대, 만대로 이어갈 또 한 세대가 준비되였다는 당당한 선언이다.

참으로 어려웠고 형언할수없이 힘겨웠다. 남의 길을 따라 걸으면 쉬운줄 몰라서 온 길이 아니고 전세대에 대한 의리가 사무쳐서만 변함없이 가는 길도 아니다. 우리는 왜 어려워도 힘겨워도 한길을 가는가. 내 못다 가며는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가야 한다는 억척의 신념으로 언제나 우리의 심장이 세차게 맥동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한길은 승리이고 승리는 한길이다.

승리는 우리의 리상이고 표대이며 눈부신 래일이기에 우리는 한길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설사 비바람이 몰아치고 격랑이 일어 삶을 위협한다 해도 오로지 한길만을 가고 또 가는것이다.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본다.

조선의 한길, 결코 잠풍한 날의 탄탄대로가 아니였다. 매 걸음이 험로역경이였고 매 순간이 신념의 검증을 요구한 간고처절한 시련의 길, 고난의 길이였다. 력사에는 우리 혁명처럼 그렇듯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걸음걸음 혁명의 진퇴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과 역경을 헤쳐온 례가 없었다.

신생조선은 너무도 청소하였으나 세계 제패야망에 환장한 미제는 참혹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들게 복구하면 또 새로운 침략의 위협을 몰아왔으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 길에서 우리를 떼여내보려고 원쑤들은 얼마나 악착하게 발악하였던가. 견디기 어려운 폭풍을 몰아왔고 미증유의 공세를 들이대기도 했다.

한길의 원쑤는 밖에만 있은것이 아니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력사는 종파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온 력사이라고 교시하신것처럼 혁명이 한단계 상승해야 할 때마다 딴길을 꿈꾸는 종파들이 머리를 쳐들고 도전하여나섰다. 그러나 막아서는 원쑤들은 처갈기고 딴길을 꿈꾸는자들은 거품처럼 밀어내며 한길의 대하는 세기와 년대를 넘어 도도히 굽이쳐 오늘 우리가 승리라고 부르는 모든것, 영광과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귀중한 재부를 이 땅우에 펼쳐놓았다.

다같이 떠났어도 모두가 한길을 온것이 아니다. 이 70년에 세계는 얼마나 많이도 보았던가. 유혹의 바람에 흔들려 피로 개척한 천금같은 자기의 길대신 남의 길을 택한 나라들도 있고 고생이 두렵고 희생이 무서워 다른 길에 접어든 나라들도 있었다.

만일 우리가 그 길에서 추호라도 동요했다면, 한걸음이라도 양보했다면 어떻게 되였겠는가. 남들이 100년 걸은 길을 단 14년으로 단축한 천리마의 진군길이 없었을것이다. 고난과 시련속에 약해진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며 솟구쳐오른 조선의 승리사가 없었을것이며 이 땅, 이 하늘아래 가득차 눈부시게 빛나는 우리의 모든것이 없었을것이다.

당창건 일흔돐의 경축광장을 누빈 당당하고 힘있는 열병종대들의 행진은 무엇으로 하여 우리 눈굽을 그토록 젖어들게 하였던가. 무적의 대오들의 발구름도 씩씩하였다. 어떤 원쑤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철갑대오의 위용은 볼수록 장쾌하였다. 그러나 바라보기만 하여도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 강위력한 무장장비들이 다름아닌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조선의것이라는 자부와 긍지는 못 견디게 우리의 심장을 격정과 환희로 높뛰게 하였다.

고난과 시련앞에 맥을 놓고 주저앉아 잠간만이라도 딴길을 걸었다면 지닐수도 떨칠수도 없는 조국의 위용이고 인민의 긍지이다. 풍요한 10월의 하늘아래 눈이 부시도록 주렁진 창조의 열매, 행복의 금방석들…

어려워도 힘겨워도 인민을 목매여 부르며 우리 당이 걸어온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에서 우리는 진정 최상의 문명의 향유자,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의 주인공으로 되였다.

한길의 긍지는 이렇듯 크고 눈부시다.

한길에서 맞이하는 인민의 영광과 보람은 이처럼 위대하고 소중하다.

한길의 진가는 시간만이 증명한다. 오늘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을 보며 세계가 한목소리로 인정하는것이 있다. 조선이 옳았다는것이다. 주체의 길이 천만번 옳았고 선군의 길이 참으로 정당하였으며 사회주의의 한길이 진정 위대하다는것이다.

70년의 존엄높은 승리자로서 우리는 당당히 말할수 있다.

한길의 이름은 백전백승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 가장 위대한 보람은 바로 영원한 한길에 있다. 한길의 인민만이, 영원한 한길의 혁명만이 모든 승리와 영광, 모든 존엄과 긍지를 받아안을수 있다는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70년의 가장 빛나는 총화이며 힘있는 선언이다.

2

우리의 한길은 수령을 따르는 길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복잡한 론리나 심오한 철학적원리가 있는것도 아니다. 모든것이 너무도 명백하고 진실하다. 단순히 굽힘이 없는 지조나 강한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한길정신은 어제도 오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수령님 가리키신 길, 우리 장군님 가리키신 길, 우리 원수님 가리키시는 길로만 곧바로 나아가는 절대불변의 정신, 불요불굴의 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우리 당중앙을 따라!

우리 혁명의 장구한 력사가 함축된 이 글발, 이 세상 우리만이 당당히 선언할수 있는 백전백승이라는 말과도 같고 우리만이 누리는 남다른 영광이라는 말과도 같다.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이 왜 그토록 순결하며 가슴벅차게 이루어지는 인민의 모든 꿈이 왜 그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운것인가를 알려면 바로 만난시련속에서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높이 든 이 글발들을 보아야 한다.

《여기에 수놓아진 붉은별은 한별동지를 상징한것이고 흰색은 그이를 따르는 우리 마음의 결백성을 상징한것이다. 우리는 이 붉은별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언제나 한별동지를 생각하자.》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성스러운 한길의 첫 개척자들인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남긴 이 말은 캄캄한 밤하늘에 유난히도 반짝이는 하나의 별을 따르듯 위대한 수령님만을 운명의 유일한 구성으로 받들어 첫걸음을 뗀 우리 한길의 시원을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수령은 한길의 기치이고 한길의 등대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한길을 간다는것은 곧 수령을 따른다는것이였고 수령을 따른다는것은 곧 한길을 간다는것이였다.

조국의 운명도, 매 개인의 운명도 판가리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나날 온갖 고난과 어려움속에서도 오로지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북으로, 북으로 향하던 인민들의 막을수 없는 그 흐름, 어둠이 깃든 행군길에 랑랑히 울려퍼지던 《**김일성**장군의 노래》, 바로 그것이 포연속에서도 헛갈림을 모르고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의 모습이였고 우리 인민의 한길정신의 숭고한 발현이였다.

그 정신은 혁명에 또 하나의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전후의 어려운 나날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수상님만을 지지합니다라는 태성할머니의 신념의 목소리로 울리였고 수령님, 헌 솜옷을 입은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저는 헌옷을 입었어도 수령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니 비단옷을 입은것보다 더 기쁩니다라는 청산리의 소박한 녀성농민의 눈물겨운 목소리로 울리였다.

수령을 따르는 길은 웃음넘친 행복의 길만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숨질듯 꿈결에도 그 품을 더듬어 찾으며 인민이 오직 한마음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는것은 인생의 참된 영광, 참된 보람이 오직 그 한길에만 있기때문이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 이처럼 간고한 길이 또 어디에 있었던가. 조선은 다 죽었다고, 그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호언장담하던 원쑤들의 면전에 놀라운 힘과 기상을 지닌 나라로 우뚝 치솟아오른 내 조국의 눈부신 위용을 바라볼수록 가슴젖게 어려오는 길이 있다.

우리 장군님 헤쳐오신 고난의 눈보라길이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결심을 품으시고 비가 와도 넘으시고 눈이 와도 헤쳐가신 오성산의 칼벼랑길, 초도의 풍랑세찬 배길, 철령의 아흔아홉굽이 험한 령길…

그 길을 따라 굶어 쓰러지면서도 주저앉지 않았고 힘이 진해 지쳤다가도 다시 일어나 걸으며 공장은 숨이 죽고 거리들엔 불이 꺼졌어도 한길을 가는 인민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진적 없었으니 그 나날에 많이도 불렀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의 노래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한길의 주제가, 천만년 변함없을 한길의 메아리였다.

장군님 따라 천만리!

장군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영광,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다!

정녕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갈길 몰라 헤매인 사람은 없었고 가장 귀중한 인생의 보람을 얻으며 우리 인민은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영광의 한길을 왔다.

무엇때문인가. 과연 무엇때문에 우리 인민은 상상할수 없는 시련의 언덕을 넘고 허리띠를 조이고 굶어 쓰러지면서도 오로지 수령을 따르는 한길에서 영광을 맞이하는것인가.

《나는 일생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옹호보위하는데 바쳤다!》

한 로세대일군이 운명직전에 남긴 이 말은 한 인간의 한생에 대한 긍지높은 총화이기 전에 우리만이 알고 우리만이 절감하며 우리만이 자부하는 인생의 영원한 보람과 긍지에 대한 선언이다.

만물에 해빛이 있어야 하듯이 인생에는 보람이 있어야 한다. 보람은 인생의 해빛이며 가장 소중한 열매이다. 보람있게 살려는 인간의 열망은 하느님도 따라보았고 재물에도 현혹되여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는 정신적방황만을 낳았다. 오직 위대한 수령을 따르는 인민만이 참다운 인생의 보람을 자기것으로 가지게 되였고 삶의 참된 뜻도 배웠다.

수령을 받드는것으로부터 참다운 인생이 시작된다. 수령은 인민의 심장이다. 끝까지 한길을 가려는 인민에게 위대한 수령이 있다는것은 얼마나 긍지높은것인가. 이 세상에 수령을 따르는 한길만큼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길은 없다.

《결코 내가 죽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명의 한길에 영원히 서있겠습니다. 동무들, 끝까지 잘 싸워주십시오!》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마지막길로 떠나는 순간에조차 자신을 또 한번 혁명의 길에 억세게 세우며 항일혁명투사 최효일동지가 한 이 말은 수령을 따르는 한길에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것이 혁명전사의 빛나는 삶이라는 철리를 새겨주고있다.

오늘도 성스러움의 정화, 생각깊은 령마루인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오르면 수령을 따르는 한길의 첫 개척투사들이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다. 그들은 우리 혁명이 떠받들어올린 한길의 용감한 투사들, 살아서는 한길의 주인공이였고 죽어서는 한길의 교사가 된 천금같은 우리의 전세대들이다. 그 누구도 이들앞에서는 딴길을 꿈꾸지 못하며 순간이라도 헛디뎠던 걸음도 이 령마루에서는 자비를 바랄수 없다. 끝없이 성스럽고 변함없이 아름답기만 한 모습으로 영생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대오, 우리만이 가지고있는 힘있는 력량으로 오늘도 우리와 한길을 걷는 혁명의 전세대들은 영원한 삶의 목소리로 값높은 인생의 영광을 가르쳐주며 신념의 군상으로 우뚝 솟아있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영원히 한길을 간다는것은 바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다는것이고 수령에 대한 믿음, 수령에 대한 충정을 저버리지 않는다는것이다. 신념은 한길의 량식이고 생명수이다. 한길의 보람도, 한길의 영광도, 한길의 승리도 이 신념에 뿌리를 두고있다.

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가슴벅찼던가.

흘러간 4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운명의 태양으로 받들어 조선이 새로운 비약과 번영의 불변궤도로 줄달음친 한길의 4년, 신념의 4년이였다.

하늘처럼 내세워주고 정담아 껴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목메이며 대하마냥 온 나라 인민이 그이의 품에 통채로 안겼고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시려 그이께서 앞장에 서신 생눈길천만리에 주저없이 따라나섰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와 같은 신념의 노래로 우리를 한길에서 떼여내고 딴길로 유도하려던 어리석은 현대판 종파분자들에게 철추를 안기였고 우리의 한길진군을 막아나서던 전쟁의 불구름도 가셔버리였다.

그이께서 백두산에 왜 그토록 자주 오르시고 백두산칼바람을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날이 갈수록 사무치게 깨닫고있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의 한길신념의 기둥, 우리의 한길진군의 향도자, 세월 끝까지 믿고 따를 위대한 태양이시다.

돌이켜볼수록 가슴뜨겁고 새길수록 눈물겹다.

혁명의 신념이 맥박치는 명곡들로 인민에게 죽어도 변치 않을 혁명신념을 심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걸어온 우리의 한길을 영광과 번영의 천만리로 더 굳건히 이어주신 고마우신 삶의 태양,

그이를 따라 우리는 얼마나 긍지높은 격동의 세월을 살았으며 그 길에서 조국은 또 얼마나 젊어지고 우리의 눈은 얼마나 높아졌던가. 인민의 행복은 또 얼마나 황홀한 천만가지 열매가 되여 이 땅우에 눈부시게 주렁진것인가.

경축의 광장을 지난지도 어언 수십일, 허나 백두산기슭을 진감한 청년강국 만세의 장엄한 포성으로부터 라선땅의 전화위복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미래과학자거리의 희한한 선경으로부터 우리 힘으로 만든 새 지하전동차의 멋진 모습과 황홀한 환상의 세계를 펼친 쑥섬의 천도개벽, 물고기떼 욱실거리는 평양메기공장의 절경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계속된 10월의 새 소식만도 너무 많아 되새겨보는것만으로도 심장이 쿵쿵 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우리는 또다시 한길의 세대로 성장하였으며 400년, 4,000년으로 이어질 광활한 한길의 래일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당중앙을 따라 1년에 10년을 주름잡으며 끝없이 비약하게 될 우리의 한길에서 맞이할 래일은 또 얼마나 눈부시고 휘황찬란할것인가.

백두산위인들을 따르는 길에서는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 죽음까지도 영광이다, 이것이 수십성상에 걸치는 우리의 한길의 력사적총화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오늘의 우리 세대가 또다시 뼈에 새기는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참으로 좋다. 시련은 있어도 신심은 넘치고 약동의 기상으로 온몸이 달아오른다. 인민이 가는 길은 정의이며 진리이다.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고 멈춰세울수 없는 불가항력의 힘을 지닌 길이다.

조선은 또다시 승리의 침로따라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았다.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향하여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이 땅우에 진군가마냥 울려퍼지는 신념의 노래, 이 노래 높이 울리는 온 나라의 초소와 일터들은 그대로 영원한 한길의 불변주로이며 신념의 전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천만의 심장이 이 신념으로 불길쳐오르고 최후승리를 향한 우리의 총돌격전에 진군의 좌표, 혁명의 구령으로 이 부름이 높이 울린다.

천만이 한길의 동지, 한길의 전우, 한길의 영웅이 되자.

우리의 한길은 땅우에 낸 길처럼 따로 그어진것이 아니다. 한길은 우리의 심장속에 있다. 매 순간순간 수령을 생각하고 수령께 충실하고 수령의 숨결로 심장을 불태우며 변함없이 바치는 량심과 헌신이 합쳐져 한길을 이룬다. 자나깨나 수령의 사상과 의지로 심장이 고동치고 수령이 가리키는대로만 나가는 순결과 끝음, 수령이 준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며 언제나 뜨거운 그리움에 사는 열렬한 충정의 정화, 어떤 유혹과 동요앞에서도 백두의 이깔처럼 굽힘을 모르는 불굴의 기개, 성스러운 그 길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 첫걸음과 마지막 걸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깨끗한 량심… 바로 이것이 한길을 가는 우리 일심단결대오의 인간상이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굳건해야 할 우리의 한모습이다.

나는 매일, 매 시각 한길을 걷고있는가?

언제나 이 물음앞에 떳떳이 설 때에만 한길을 간다고 말할수 있고 한길의 진정한 동지라고 말할수 있다.

어느때 보아도 한길이 보여야 한다.

자신께서는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불타는 강도 서슴없이 건느고 험한 가시발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인민의 수호자,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려고 한다고 그리도 절절히 피력하시며 인민위한 멸사복무의 한길을 앞장에서 걸으시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언제나 그이만을 생각하고 그이만을 그리며 원수님과 뜻과 신념, 보폭을 함께하는 의리의 동지, 신념의 동지가 되자.

우리의 한길은 자나깨나 우리 원수님에 대한 충정과 매혹으로 불타는 그리움의 길, 그이의 뜻과 구상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온몸을 서슴없이 바치는 헌신의 길, 한마음한뜻의 길이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딴길을 걷는 사람, 어렵고 힘들다고 순간이라도 다른 길을 넘겨다보는 사람, 조국과 혁명보다 개인의 안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한길의 전우가 될수 없다. 순결해야 한길이고 곧아야 한길이다.

우리의 한길을 사랑하자!

조국의 힘과 존엄을 떨치는 소중한 뿌리로 사는 국방과학자들처럼, 체육전장을 누비며 람홍색공화국기를 세계의 하늘높이 날린 오늘의 빨찌산녀전사들처럼, 초음속비행기속도로 당중앙의 작전시간을 수호해가는 군인건설자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세계의 하늘높이 떠받들어주시려는 우리 원수님을 온넋으로 따르며 조국위한 한길, 인민위한 한길만을 걷는 참된 전우, 열혈의 동지가 되자.

가야 할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그 길에 시련의 험산준령이 또다시 열백번 가로놓인다 하여도 운명의 태양을 따르는 우리의 한길은 추호도 변침을 모를것이며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우리의 신념은 붉게 필것이다. 원쑤들은 그 어떤 물리적인 파괴수단으로 이 땅우의 길은 끊어버릴지 몰라도 우리 신념의 혈맥, 운명의 숨줄, 승리와 번영의 한길만은 절대로 끊을수도 막을수도 없다.

막아서는 산악은 뚫고 헤치고 밀려드는 파도는 넘고 헤치며 우리는 곧바로, 끝까지 위대한 우리의 당중앙을 따라 가고 또 갈것이며 그 길에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도, 모든 영광도 맞이할것이다.

방 성 화, 한 충 혁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심과업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전면적으로 더욱 다그치는데 있습니다.》 김 정 일

세폭의 붉은기 높이 날리며 당을 따라 끝까지 잊지 못할 새해의 첫아침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려고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강산에 메아리치는 격동적인 시기에 열리게 되는 제4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

뜻깊은 대회를 눈앞에 둔 이 시각 우리 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선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표대로 틀어쥐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높이 우리 혁명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을 돌이켜볼수록 우리 인민은 이 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준비정도에 맞는 보다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벌려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3대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와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결심을 지니시고 주체64(1975)년 7월 1일 검덕광산(당시)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먼길의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광산의 전반적실태를 료해하신데 이어 광부들을 만나보자고 하시면서 4.5갱으로 향하시였다.

일군들이 갱으로는 들어가실수 없다고 말씀올렸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갱이고 광부들이 일하는 곳인데 왜 못 들어가겠는가고 하시면서 인차에 오르시였다.

석수가 쏟아지는 막장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갱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보고싶어왔다고 하시며 광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끊임없이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문제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면서 지금은 로동계급의 세상인것만큼 마땅히 로동계급의 대부대가 살며 일하는 검덕에서 로동계급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여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게 하며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검덕이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검덕광업련합기업소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계속 앞장서나가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의 다함없는 믿음과 사랑에 끝없이 고무된 검덕의 로동계급은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렸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리였다.

새로운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을 벌릴데 대한 구상을 펼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4(1975)년 11월 3대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발기, 이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며칠후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공업부문에서는 검덕광산이, 농업부문에서는 청산협동농장이 추켜들게 하며 전국의 모든 단위들이 그에 호응하게 할데 대하여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검덕의 로동계급과 청산리의 농장원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들었다.

주체64(1975)년 12월 1일, 영광의 땅 금골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하는 종업원모임이 진행되였으며 모임에서는 전국의 공장,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전체 근로자들에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검덕의 로동계급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였다. 4.5갱의 광부들은 대담하게 채굴대차를 도입하고 새로운 발파법을 받아들임으로써 한 채굴장에서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채굴속도를 1.5배로 높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7(1978)년 9월초 검덕광업련합기업소 4.5갱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4.5갱의 광부들은 그 이후에도 통이 크게 채굴막장을 확장하고 현대적인 채굴대차를 받아들임으로써 한발파에 수만t의 광석을 생산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금골은 굴지의 유색광물생산기지로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검덕과 청산리의 뒤를 이어 온 나라 곳곳에서 거세차게 타오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생활기풍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을 안아왔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새로운 대중운동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설날 또다시 관계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운동은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줄기차게 벌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이 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면서 출판보도선전과 경제선동, 직관선전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각지에서 진행되는 궐기모임소식들이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매일과 같이 전해지고 전투적이며 호소성있는 구호들과 선전화들이 도처에 나붙었으며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졌다. 세폭의 붉은 기발이 휘날리는 속에 온 나라는 말그대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련과 난관이 가로막아나설 때마다 일군들에게 우리는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3대혁명의 길이며 3대혁명만이 살길이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며 더 힘있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운동을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당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가도록 획기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김일성경기장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솟아난 1980년대는 그야말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일대 전성기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과 과학, 문화, 교육, 보건부문을 비롯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으로 거세차게 벌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창조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이 운동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체75(1986)년 11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를 보내주시였다.

이 로작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더 활력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떠밀어준 위력한 추동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력사의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줄기차게 전진하였다.

그 거세찬 흐름과 더불어 우리 혁명에서 류례없이 간고한 시기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수천개의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영광스러운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며 오늘도 세차게 타오르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

정녕 그 불길속에서 우리 조국은 세기를 주름잡으며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세폭의 붉은기 더욱 힘차게 휘날리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세폭의 붉은 기발아래 이 땅우에 펼쳐진 눈부신 성과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지금으로부터 근 40년전 설날에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전인민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이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장엄한 포성이 울린 때로부터 한달 남짓이 흐른 주체65(1976)년 1월 1일이였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설날의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그이께서는 이날도 평범한 로동일로 보내시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의 사업실태를 총화분석하시고 이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게 된 우리 당의 전략적의도와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기로 한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비약을 일으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백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러시고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격동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일군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던 그때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눈부신 기적과 전변들로 차고넘칠 우리 조국의 가슴벅찬 현실이 눈앞에 환히 안겨와 가슴설레임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전개원칙과 중심과업,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단계를 옳게 설정하는 문제,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하는 문제, 이 운동을 당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 등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조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서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온 나라가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리는 새해첫날에도 이렇듯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숭엄히 우러렀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구체적인 묘술과 방법론을 가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당의 의도대로 더욱 힘있게 전개해나갈 불같은 맹세가 세차게 타올랐다.

본사기자

백금산의 영웅소대가 전하는 이야기

백금산의 영웅소대에 대해서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소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우리 나라 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3대혁명붉은기를 펄펄 휘날린 선구자들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대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입니다.》

주체64(1975)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룡양의 광부들을 찾아주시였다.

검덕광산(당시)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떠나시던 길에 아무리 바빠도 룡양의 광부들을 만나보고 가자고 하시며 이곳에 들리신것이였다.

마중나온 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광산전경을 한동안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웅소대가 일하는 채굴장이 태는 이렇게 좋다고, 이런 로동계급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시며 룡양광부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하여 거듭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백금산의 영웅소대원들은 장군님의 그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 힘차게 내달리였다.

그러던 영웅소대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해 11월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인 구호를 제시하시고 새로운 높은 형태의 전인민적대중운동인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발기하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였다.

몇달전 자기들의 험한 일터에까지 몸소 찾아오시여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의 손길을 자각한 백금산의 영웅소대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더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이 거세찬 운동의 맨 앞장에 설것을 결의해나섰다.

그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구호입니다. 우리는 이 구호를 들고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벌렸습니다. 오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도 이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은 백금산의 영웅소대원들은 당이 제시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아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도 집단적혁신,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주체67(1978)년 4월 룡양의 백금산마루에 우리 나라 공업부문에서 처음으로 3대혁명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리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준 혁

전인민적대중운동의 불길 타오르던 나날에

영원한 승리의 원천

주체75(1986)년 1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창조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이 운동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기 위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뜻깊은 력사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를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며 결의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들과 이 운동을 다른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인 서한,

참으로 그것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더 활력있게, 박력있게,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달음치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영예등록장에 깃든 이야기

오늘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끓어번지는 그 어느 단위를 찾아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을 볼수 있다.

여기에도 얼마나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는 과정에 창조된 모범들을 적극 내세우고 일반화하는것을 이 운동을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6(1977)년 7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직장, 작업반들과 혁신자들을 영예등록장에 등록하고 널리 소개선전하며 우수한 경험은 일반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영예등록장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궐기한 모든 공장, 기업소, 농장, 직장, 작업반별로 품위있게 잘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활용하도록 그 운영방법도 가르쳐주시고 영예등록장에 등록된 대상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그리고 3대혁명기수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고 평가하는 사업도 잘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사회적관심은 더욱 높아지게 되였고 우리 인민들모두가 이 운동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떨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고무적기치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군인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설한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인들의 자랑찬 투쟁위훈이 뜨겁게 스며있는 창조물을 보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타개하고 우리 나라를 온 세상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위력으로!

바로 이것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온 나라에 전진과 투쟁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세폭의 붉은기높이 이 땅우에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인민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수 있게 하는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본사기자 강 철 남

년간계획을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운전수산사업소와 해주화학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뜻깊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계속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운전수산사업소에서

운전수산사업소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올해 수산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이들은 뜻깊은 올해를 수산물생산성과로 빛내일 열의밑에 출항의 배고동소리높이 몽금포중심어장과 서해북부수역에 진출하여 9천t이상의 물고기와 건뎅이를 잡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사업소일군들은 올해에도 물고기대풍을 마련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겨울철배수리전투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겨울철조건에서 수십척이나 되는 배들의 대, 중, 소수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날씨가 사나운데다가 용접봉과 철판을 비롯한 자재들도 모자랐다.

난관이 겹쌓일수록 지배인 최광철동무는 혁신적인 안목으로 배수리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면서 배수리전투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수산사업소에서는 이미 마련해놓은 4대의 발전발동기를 만가동시키면서 용접과 제관, 제재작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배수리전투장에서는 선단, 작업반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이 벌어졌다. 지배인, 초급당비서,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한개 선단씩 맡아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며 더 높은 물고기잡이성과로 뜻깊은 올해를 빛내이도록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진행하며 배수리전투를 힘껏 떠밀어주었다. 일군들은 기술자, 어로공들과 서로의 지혜를 합쳐 외통식안강망선을 쌍통식안강망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겨울철배수리전투기간에 9척의 안강망선을 쌍통식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은 물고기잡이에서 어구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어구작업반에서 착상한 활개가 짧고 아구리가 넓은 그물을 모든 배들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사업소에서는 어장상태를 환히 알고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게 어장탐색과 관련한 새 기술개발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였다.

사업소에서는 2월말까지 수십척에 달하는 배들의 수리를 전부 끝내고 3월초 얼음이 풀리는 즉시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며 몽금포중심어장으로 출항하였다. 그때부터 사업소의 어로공들은 과학적인 어로전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줄기차게 벌려 올해 계획보다 더 많은 물고기와 건뎅이를 잡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나날 사업소당조직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물고기잡이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하였다. 사업소에서는 올해에도 자체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종업원들에게 배정해주었을뿐아니라 수십정보의 부업기지를 잘 운영하여 종업원들의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땔감도 보장해주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수산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적극적인 어로전을 계속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송 창 윤

해주화학공장에서

해주화학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계획수행기간 공장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끝내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칠감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과학기술에 의거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배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갔다. 또한 앞새를 메고 칠감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기술과 책임부원 엄영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투쟁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칠감생산의 주원료를 국산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이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완강한 투쟁을 벌려 칠감생산의 주원료를 국산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장에서는 칠감생산에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기 위한 투쟁과 외장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었다.

기사장 장명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칠감생산을 위한 수지생산공정에 풍력과 태양열을 리용할것을 결심하고 고심어린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풍력과 태양열을 리용하여 칠감을 생산하는 수지생산공정을 꾸려놓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였다.

실험실 실장 신동철동무는 힘찬 투쟁을 벌려 외장재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과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칠감생산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도록 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 많은 칠감을 생산하여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박 철

효능이 높은 좋은 약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토성제약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변모된 마을에 비낀 헌신적복무정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회양군 포천리**의 소재지마을에 수십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훌륭히 건설 및 개건되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외장재를 칠한 기와집들에는 2칸의 살림방과 전실, 부엌과 세면장, 실내창고와 함께 농장원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야외창고까지 갖추어져있다. 살림집마다에는 자연흐름식으로 먹는물이 흘러들게 되였다. 담장을 산뜻하게 둘러친 뜰안에는 터밭도 있어 농장원들 누구나 좋아한다.

이렇듯 아담하게 꾸려진 새 마을에는 리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보다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있다.

그들은 리소재지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새로 건설하고 50여동의 살림집과 문화회관, 포천원, 10일유치원 등 수십동의 공공건물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짓거나 개건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건설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수백t의 세멘트와 수십t의 강재, 목재, 타일, 유리, 비닐판 등 필요한 자재들을 해결하면서 건설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몇달사이에 소재지마을의 면모가 완전히 달라졌다. 쓸모있고 편리하게 건설된 살림집들에 새로 보금자리를 편 농장원들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그 사랑에 보답할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내여나가자

뜻깊은 창립 일흔돐을 앞두고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4(1945)년 11월 18일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창립해주신 때로부터 70년의 력사가 흘러왔다.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인 크나큰 긍지속에 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온 나라 녀맹원들은 위대한 당을 따라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녀성운동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강화발전된 주체의 혁명적녀성운동입니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창립 7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을 절세위인들의 녀성동맹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녀맹중앙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각지 녀맹조직들에서 절세위인들의 고전적로작들과 위대성도서들, 출판물을 통한 교양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북조선민주녀성동맹창립에 즈음하여》와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학습이 독보와 문답식학습경연 등의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였다.

모든 녀맹조직들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수록된 위대성도서의 내용을 동맹원들에게 체득시키기 위한 녀맹해설대활동이 힘있게 전개되고 잡지 《조선녀성》을 비롯한 출판물들에 실리는 기사, 편집물들을 통한 교양사업이 실효성있게 진행되였다.

녀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전동맹적인 강연선전도 집중적으로 벌렸다. 그들은 강연제강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동맹조직들에 내려가 힘있는 강연선전으로 동맹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녀성운동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었다.

뿐만아니라 모든 초급녀맹조직들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따라배우는 학습에도 힘을 넣도록 하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교양거점들을 꾸리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과 녀맹원들이 절세위인들의 녀성운동령도업적을 심장마다에 더욱더 깊이 간직하도록 하였다.

당창건 70돐과 동맹창립 70돐을 계기로 녀맹중앙위원회에는 녀맹원들의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혁명사적교양실이 훌륭히 꾸려지고있고 현지지도표식비가 정중히 건립되였다.

교양거점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 나날은 그대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 깊이 새겨주고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갈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령도업적단위들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령도업적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삼지연군을 비롯한 수백개의 령도업적단위들을 본보기로 꾸리는 사업을 전동맹적인 사업으로 밀고나갔다.

또한 다매체편집물을 통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녀맹원들이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녀맹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기념일들과 명절 등 중요계기들을 통한 령도업적교양에도 품을 넣었다.

녀맹중앙위원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발표 5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 발표 20돐과 3.8국제부녀절 105돐을 맞으며 진행한 연구토론회와 중앙보고회, 제20차 전국녀맹예술축전, 명절, 기념일때마다 조직한 덕성이야기모임, 경축공연 등을 통하여 녀맹원들을 당의 령도업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켰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된 령도업적교양사업은 커다란 실효를 가져왔다.

조선녀성운동의 첫걸음마를 떼여주시고 녀성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불굴의 투사, 시대의 꽃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절절한 그리움, 녀성들을 선군시대의 어엿한 혁명가로 억세게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안고 우리의 녀맹원들은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신념을 백배로 다지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게 되였다.

지금도 우리 녀맹원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의 축복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두고보라고, 수백년 잠자던 우리 녀성들이 이제 무서운 힘으로 세계를 놀래우게 될거라고 조선녀성들의 앞날을 열렬히 축복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나라 녀성들중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녀성혁명가들이 많다고, 이것은 녀성운동의 빛나는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당의 자랑이며 긍지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그 뜻이 우리 녀맹원들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전국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절세위인들의 영원불멸할 녀성동맹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필승의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녀성운동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해 질풍같이 노도처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한영철

힘있는 력량

◇ 당창건 70돐을 경축한 뜻깊은 올해에 조선민주녀성동맹도 창립 70돐을 맞이하고있다.

얼마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온 나라 녀성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제2차 전국녀맹초급일군열성자대회가 열리였다. 대회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녀성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전체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지금 온 나라 녀성들은 조선녀성운동이 걸어온 70년력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당의 의도대로 강성국가건설에서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지난 70년간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쌓아올린 조선녀성들의 공적은 우리 당력사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력사가 실증해주고있다.

성스러운 우리 혁명력사의 갈피마다에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녀성혁명가들의 영웅적위훈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최후의 순간에도 《조선혁명만세!》, 《녀성해방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장렬한 최후를 마친 안순화동지를 비롯한 항일의 녀투사들과 조국과 혁명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녀성영웅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고난의 행군시기의 수많은 유명무명의 녀성로력혁신자들의 위훈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오늘 우리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영웅조선의 효녀들인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나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애지중지 키워 총대병사로 내세우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누가 보건말건 수십년세월 원군의 길을 걸어온 녀성들과 숭고한 동지적사랑을 안고 영예군인의 안해가 된 녀성들, 남자들과 꼭같이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면서 아들딸들을 영웅으로, 혁신자로 키워낸 녀성들은 또 얼마인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녀성혁명가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오늘 우리 녀성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

모든 녀성들은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기개와 열렬한 애국심,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고 강성조선의 앞날을 위해 자식들을 많이 낳아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우며 선군조선의 녀성다운 혁명적풍모를 지니고 사회와 집단, 가정앞에 지닌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녀성들은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혁명화를 다그치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

각급 녀맹조직들은 녀성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열렬한 애국심을 지닌 녀성혁명가로 준비시켜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도 탄광의 주인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안의 녀맹조직들에서

고원탄광에는 종업원명단에 올라있지 않는 수천명의 《종업원》들이 있다. 장동동과 건천동의 녀맹원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맹조직들은 광범한 녀성들을 발동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대중운동을 조직전개하며 녀맹돌격대활동도 벌려야 합니다.》

4년전 여름, 조용하던 장동동, 건천동골짜기가 녀인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떠들썩해졌다. 탄광지원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린 평안남도안의 녀맹조직들을 찾아가보고 돌아오는 길로 축사건설에 달라붙은 녀맹원들이였다.

축산을 본때있게 하여 석탄증산에 기여하려는 이들의 결심을 탄광당조직에서 적극 지지하고 도와나섰다. 3동의 축사건설을 녀성들의 힘으로 45일동안에 끝내고 가을부터는 집짐승기르기를 시작하였다.

석탄증산에서 큰 몫을 맡아하는 이곳 녀맹원들의 힘찬 발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해 12월초 탄광에서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혁신자들에 대한 축하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이채를 띤것은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녀맹원들의 공연이였다. 녀맹원들에게 자기들도 석탄생산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긍지와 자각을 심어주고 그들을 통하여 탄부들의 열의를 더욱 추동하려는 초급녀맹일군들의 발기에 의한것이였다. 화려한 조선치마저고리를 떨쳐입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축하해주는 안해들앞에서, 공연이 끝난 후 그들이 성의껏 마련한 음식상앞에서 탄부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초급녀맹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부들을 위한 날을 매달 정상적으로 운영할것을 결정하고 녀맹원들을 발동하여 그 준비에 품을 넣었다.

다음해 1월 천여명을 대상으로 첫 탄부들을 위한 날이 성과적으로 운영되였다. 녀맹원들이 자기들이 건설한 축사에서 직접 키운 집짐승들이며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 등으로 품들여 준비한 음식상을 마주한 탄부들은 안해들의 성의를 가슴뭉클하게 느끼며 더 많은 석탄을 캐낼 결심을 새롭게 다지였다.

탄부들을 위한 날운영은 커다란 실효를 나타냈다.

다음날 탄광적인 석탄생산량은 전날에 비하여 80여t이나 뛰여올랐다.

초급녀맹조직들에서는 경쟁적으로 집짐승기르기를 통이 크게 벌리였다. 초급녀맹위원회에 탄부들을 위한 날운영일지를 만들어놓고 매달 총화하면서 녀맹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켰다. 탄부들의 반영은 대단하였다. 그것은 석탄증산으로 이어졌다.

초급녀맹조직들에서는 또한 맹렬한 녀맹돌격대활동으로 석탄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난해 가을부터 전기사정이 긴장해지면서 막장에도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때가 있었다. 채굴, 채탄조건이 어려워진것은 물론이고 운반에도 애로가 조성되였다.

초급녀맹일군들은 마주앉아 진지한 토의를 하였다. 매일 아침 탄부들에 대한 출근길환영을 진행하고 집짐승을 길러 후방사업을 하는것만으로는 만족할수 없는 그들이였다. 홀린탄수집, 채벌장에서 동발나무다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일을 녀맹돌격대가 맡아하자는 한 일군의 발기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찬동하였다.

초급녀맹위원회들에서는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 돌격대의 활동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부문위원회사이, 초급단체들사이 경쟁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켰다.

돌격대원들모두가 우리가 노력한것만큼 남편들의 수고가 줄어들고 석탄산이 높아진다, 남편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일하자고 하면서 홀린탄수집, 동발나무다듬기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쳤다. 그 구슬땀이 밑거름이 되여 석탄산은 날로 높아갔다.

우리도 탄광의 주인이다! 라는 자각을 녀맹원들의 심장마다에 심어주고 그들의 애국열의를 북돋아주어 석탄증산에 크게 기여한 이곳 초급녀맹조직들의 투쟁기풍은 얼마나 훌륭한가.

본사기자 김향란

미덕의 화원을 가꾸어가는 주인공들

전쟁로병들을 위한 날에

지난 10월 어느날이였다.

아침해빛이 쏟아져내리는 산골길에 녀인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아마 집주변에 심은 콩을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했을수 있어요.》

《전에 보니 터밭에 남새들을 많이 심었던데 일손이 필요할거예요.》

그러면서 걸음을 다그치는 녀인들은 구장군녀맹위원회 일군들이였다.

며칠전 군녀맹위원회에서는 전쟁로병들을 위한 날운영계획을 토의하던 끝에 수구리에 사는 권옥임전쟁로병의 가정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늙은이들끼리 사는것만큼 도와줄 일이 많을것이라고, 그러니 일요일에 모두들 함께 가서 로인내외의 일손을 도와주자는 녀맹위원장 리향금동무의 제기가 녀맹일군들의 일치한 지지를 받았던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떠난 길이였다.

전쟁로병의 집에 이른 녀맹일군들의 눈길은 울타리에 쏠렸다. 오래된 울타리를 번듯하게 손질해주기로 결심한 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막돌을 채취하여 무너진 구간을 다시 쌓고 장식까지 잘해놓으니 새 울타리 같았다. 땀을 훔치며 미소를 짓는 녀맹일군들을 바라보며 권옥임전쟁로병은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우리를 친딸처럼 여기고 일감이 생기면 무랍없이 찾군 하세요.》

따뜻한 정이 흘러넘치는 녀맹일군들의 이야기는 전쟁로병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감동깊은 원군길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돌아온 날 밤 세포군 읍초급녀맹위원회 일군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성산지구의 다리건설장에서 본 군인들의 감동깊은 투쟁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려왔던것이다.

이튿날 초급녀맹위원회 일군들은 약속이나 한듯 바쁘게 일손을 놀렸다.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하자고 발기한 사람은 따로 없었지만 모두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인들에게 보낼 물자를 성의껏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안고 건설장에 찾아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군인들이 인민들에게 페를 끼칠수 없다며 원호물자를 받는것을 완강히 거절하는것이였다. 녀맹일군들은 꼭 받아달라고 사정하고 군인들은 절대로 받을수 없다고 사양하는 눈물겨운 광경이 펼쳐졌다. 끝내 녀맹일군들은 건설장에 몰래 원호물자들을 놓고 도망치다싶이 달려나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된 읍지구 녀맹원들이 경쟁적으로 건설장으로 향하였다. 다리입구를 지키고있는 인민군대지휘관들의 눈을 피해 길 아닌 길을 타고 건설장에 원호물자를 들여보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한 《전투》는 다리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였다.

우리 공원으로 불리우기까지

지난해 4월 어느날 선교구역 선교1동 초급녀맹위원회 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거리와 마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기 위한 계획을 토의하기 위해서였다.

해방직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몸소 찾아오시여 녀맹초급단체를 무어주시고 녀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녀맹조직답게 모든 면에서 앞장에 서자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하여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새겨진 아빠트들의 주변에 있는 공원과 놀이터를 현대적으로 개건할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녀성들의 힘으로 공사를 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녀맹원들은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재도 구해오고 꽃블로크도 찍었다. 공원에는 멋진 배구장이 꾸려지고 유희기재들도 설치되였다. 새로 조성한 잔디밭과 꽃밭, 동물조각상들은 공원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100㎡의 면적을 가진 공원을 훌륭히 개건하였다.

오늘 새 모습을 갖춘 공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정답아 부르는 우리 공원, 그것은 거리와 마을을 더 아름답고 알뜰하게 꾸리기 위해 진정을 바쳐가는 이곳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본사기자 김순영

오늘의 생산돌격전에서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해가는 녀성로동자들의 보람 끝없다.
—함흥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에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에 넘쳐있다.
—철산과수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각지에서

어머니날을 뜻깊게 맞이

각지 어머니들은 수도의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여 우리 어머니들의 행복과 후대들의 밝고 창창한 미래가 꽃펴날수 있었음을 절감하며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김정숙군, 회령시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은 어머니들은 백두산녀장군께서 주체혁명위업의 미래를 받들어올리시고 조국과 혁명,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당의 은정속에 어머니날을 즐기는 녀성들의 기쁨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넘쳐흘렀다.

함흥대극장에서는 함경남도예술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어머니날을 축하합니다》가, 황해남도예술극장에서는 도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 《어머니의 행복》이 있었다.

합창 《조선의 어머니》, 바이올린독주와 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나의 어머니》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녀성4중창 《그 품이 제일 좋아》, 남성5중창 《녀성은 꽃이라네》, 무용 《어깨춤》, 아동3중창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남성독창 《세월이야 가보라지》 등의 종목들을 보며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들먹이였다.

강계시에서 진행된 2.16강계고등예술전문학교 교원, 학생들의 예술소품공연에서는 어머니당의 손길아래 자식들을 나라의 기둥감으로 어엿하게 키우며 일편단심 애국의 한길을 걸어가는 우리 녀성들의 자랑넘친 모습들이 펼쳐졌다.

사리원시의 녀맹원들은 사리원경기장에서 윷놀이와 그네뛰기 등의 오락경기와 열띤 응원분위기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각지 시, 군들에서 축하공연과 모임, 자랑무대들이 펼쳐지고 어머니들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교육자, 과학자들의 행복이 넘쳐나는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인 미래과학자거리의 창가마다에는 자식들과 제자들의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안고 행복의 웃음짓는 녀성과학자, 교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비껴있었다.

어머니날을 맞으며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들과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서 보내는 아들딸들의 축하장들이 어머니들에게 전해졌다.

옥류관, 청류관, 칠성각, 신흥관, 강계면옥을 비롯한 각지의 급양봉사망들에서의 친절한 봉사도 어머니들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우리 당의 은정속에 뜻깊은 날을 기쁨속에 보내는 어머니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온 나라 대가정의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새기고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애국의 길, 보답의 길에서 녀성혁명가의 본분을 다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웠다.

【조선중앙통신】

앙골라를 공식방문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귀국

【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앙골라독립 4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고 앙골라공화국을 공식방문하였던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6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신홍철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마중하였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13일 루안다를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마누엘 도밍구스 아우구스뚜 국무비서를 비롯한 앙골라대외관계성 관계자들과 김현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체류기간 외무상은 새로 건설된 국회의사당 준공식에 참가하였으며 앙골라국회의장, 국방상, 짐바브웨외무상, 말리외무상을 만났다.

국제유술련맹 위원장 도착

【평양 11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마리우스 비저 국제유술련맹 위원장이 16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손광호 체육성 부상이 맞이하였다.

국제유술련맹 위원장

독자의 편지

우리 시대 청년의 참모습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변함없이 영예군인인 저에게 친혈육의 정을 다 바쳐온 황남공업대학 자동화공학부 리광천학생의 소행을 전하고싶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민족의 대국상앞에서 온 나라가 비분에 몸부림치던 피눈물의 7월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으로 향하는 저를 부축해주던 소년단원이 이제는 어엿한 제대군인대학생이 되였습니다.

리광천동무가 학과학습으로 낮과 밤을 불같이 이어가는 속에서도 저를 위해 바쳐온 지성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명절과 생일날은 물론 때없이 찾아와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지성을 기울이는 그의 진정에서 혁명동지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였습니다.

당의 은정속에 제가 영예군인료양소로 떠날 때에는 여러가지 보약들과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마련하여 보내주었으며 집보수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두팔걷고 도와나섰습니다.

한 영예군인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힘껏 떠밀어주고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는 그의 진정앞에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전 저의 집을 찾은 광천동무는 고마와하는 저의 손을 꼭 잡고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우리 새 세대들의 본분이고 의무이라고 뜨겁게 이야기하는것이였습니다.

정말 이런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낸 고마운 우리 당에 다시 한번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해주시 선산동 31인민반
렴동익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백두청춘들이 앞장에서 마련해간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당을 위하여 높뛰는 청춘의 심장

평안북도려단에서

당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백두청춘들의 투쟁기풍, 투쟁본때는 평안북도려단이 맡은 물길굴피복공사장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당중앙의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불타는 일념에 충만된 평안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벌린 힘찬 투쟁에 의하여 11월 3일 3호물길굴피복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되였다.

인생의 귀중한 시절을 조국을 위해 바쳐가는 청년돌격대원들, 그들의 투쟁위훈은 백두의 칼바람에 심신을 단련해나가는 영웅적청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려단이 3호물길굴피복공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작업조건은 매우 불리하였다. 불어난 서두수의 물로 하여 기둥로도 변변치 않았고 목재를 비롯하여 부족되는 자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조건타발을 몰랐다. 오직 당을 위하여 곧바로만 나아갈 드팀없는 신념을 지닌 청년돌격대원들은 200여m의 도로를 새로 뚫고 목재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다. 돌격대원들은 공사용자재가 충분히 마련되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병실보수에 필요한 자재도 서슴없이 들고나와 지체없이 공사에 착수하였다.

지난 10월 10일 물길굴피복공사를 시작한 려단은 철근가공과 조립, 휘틀조립을 선행시키고 목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기세드높이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려단지휘부에서는 1, 2호물길굴공사에서 쌓은 경험에 토대하여 로력조직과 지휘를 합리적으로 하고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도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현장방송을 설치하고 붉은기와 전투속보판들을 기동적으로 전개하여 사상공세를 드세게 들이댐으로써 온 공사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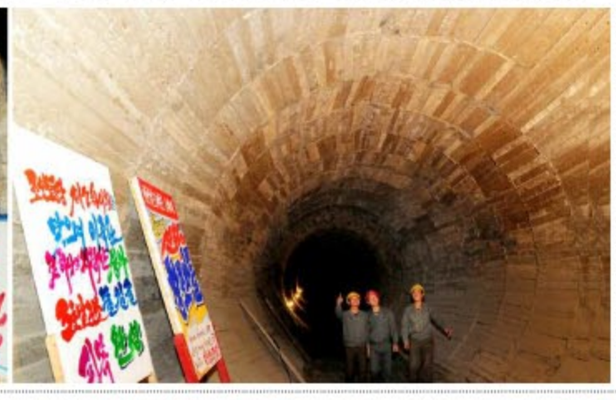
려단이 공사속도를 더더욱 높이며 힘차게 달리던 10월말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였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타입의 질을 보장할수 없었던것이다. 물길굴의 입구와 출구가 통풍이 되면서 찬바람이 들어와 공사에 적합한 온도가 보장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굴안에 불을 피울수도 없었다.

모두가 해결책을 모색할 때 려단장 박원근동무가 방도를 내놓았다. 물길굴의 입구와 출구에 박막으로 문을 해달자는것이였다. 그런데 당장 많은 량의 박막을 해결할수 없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마대와 비닐주머니를 동원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면 입고있던 비옷까지 서슴없이 내놓았다. 짧은 기간에 문이 완성되고 공사는 중단없이 진행될수 있었다.

그러나 돌격대원들의 앞에는 의연 난관이 막아나섰다. 갑자기 들이닥친 추위로 골재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던것이다. 대원 홍금철, 황주복, 유원철동무를 비롯한 골재보장을 맡은 대대의 돌격대원들은 마대전을 들이대며 공사에 가로놓인 난관을 과감히 극복해나갔다. 물이 줄줄 흐르는 골재를 마대에 담고 메나를 때면 돌격대원들의 옷은 흠뻑 젖고 추위에 입술까지 새파래졌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의 청춘시절은 오직 당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런 신념을 가슴마다에 만장약한 청년돌격대원들은 쉬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6대대, 7대대를 비롯하여 타입을 맡은 대대의 돌격대원들도 용기백배하여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려단의 적지 않은 인원들이 다른 대상공사에 동원된 조건에서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무조건 관철하려는 불같은 일념으로 돌격대원들은 한명이 두사람, 세사람몫을 하며 매일 맡겨진 과제를 무조건 수행해나갔다. 대원 리근혁, 전혁철, 리세철동무들은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여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헌신분투하였다. 처녀돌격대원 황금주, 전숙영, 류미향동무들도 백두산의 영웅청년이라는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남대원들 못지 않게 혁신자로 이름떨쳤다.

당을 받드는 불보다 뜨거운 심장으로 뭉쳐진 평안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물길굴에 청춘의 자서전을 새겨넣으며 달리고 또 달려 11월 3일 피복공사를 완공하였다. 평양하늘을 우러러 마음속으로 충정의 보고를 올리는 청년돌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시절을 빛내여간다는 기쁨과 행복이 한껏 어려있었다.



분과 초로 이어지는 격전

자강도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조압수조를 최대한 빨리 건설하는것은 다음해 청년절까지 3호발전소를 완공하는데서 자못 중요한 문제이다. 더우기 강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불리한 지형조건을 극복하면서 콩크리트타입량을 최대한 늘인다는것은 힘에 부친 일이였다.

려단지휘관들은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방틀과 휘틀제작을 선행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그런데 방틀과 휘틀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목재가 문제였다.

려단에서는 전투력있는 4대대의 돌격대원들로 통나무생산조를 조직하고 30여리나 떨어져있는 채벌장에 올라 목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운수수단이 부족한데다가 갑자기 이동작업을 나오다나니 생활조건도 매우 불리하였다. 그러나 청년돌격대원들은 자신들의 숙소보다 공사를 먼저 생각하였다.

언제나 항일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안고 사는 청년돌격대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목재가 마련되였으며 뒤이어 필요한 방틀과 휘틀이 제작되였다.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련속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공사를 추진시켜나갔다.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하여 기계수단은 물론 사람도 다니기 힘든 경사급한 비탈길이였지만 돌격대원들은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불비쏟아지는 고지에 탄약을 운반하는 심정으로 마대와 맞들이로 수백㎥의 물동을 나르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장하였다. 1대대의 리효남, 윤혁일, 최정권, 김금성동무들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조건에서도 몸에 바줄을 매고 10여m높이의 허공에서 함마와 정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암반을 정리하며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10월말 기온이 내려가고 추위가 들이닥치며 공사에 몹시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기온이 내려가면 타입을 못하는것으로 여기는 일부 대원들은 맥을 놓고 주저앉았다. 이때 려단장 김군식동무가 불같은 어조로 대원들에게 호소하였다.

《동무들, 당중앙이 우리를 지켜본다. 여기가 총포탄이 우박치는 격전장이라면 날씨가 추워졌다고 전투를 중지하겠는가. 백두청춘의 돌격정신으로 앞으로!》

돌격대원들이 한사람같이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더운물로 물탈을 이기고 타입을 진행한 곳에는 나래를 덮고 주변에 우등불을 지피며 공사를 중단없이 밀고나갔다.

려단의 위훈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10월 28일 공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용접기와 변압기가 멎는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물론 현장련합지휘부의 방조를 받으면 얼마든지 퇴치할수 있는 고장이였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2~3일은 걸려야 하였다. 시간을 쪼개가며 공사를 진행하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에게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시간이였다.

려단의 그 누구에게도 용접기나 변압기를 수리해본 경험은 없었지만 그들의 심장속에는 맨손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낸 항일의 전통이 간직되여있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그 본때로 용접기는 단 4시간, 변압기는 16시간만에 자체로 수리해내여 공사장의 숨결을 더욱 높이였다.

자강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빠른 기간에 조압수조공사를 끝내고 당중앙에 충정의 보고를 올릴 불타는 한마음안고 나날이 성과를 확대해가고있다.

청춘언제건설의 척후병이 되여

청년강국을 받드는 밑거름이 될 순결한 마음으로 누가 보건 말건 청춘언제에 깨끗한 땀을 바쳐가는 사람들속에는 현장련합지휘부 전력설계분과의 설계원들도 있다.

분과장 황성호동무는 당중앙의 명령을 심장에 간직하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여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가배수로의 직경을 바로 정하여 타입량을 1 300여㎥나 줄이고 많은 량의 철근을 절약한것, 취수구의 위치를 현장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공사기일을 단축하고 적지 않은 자재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가배수로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은 조인성동무를 비롯하여 마명길, 박용길, 김철성동무를 포함한 분과의 모든 성원들은 자신들앞에 맡겨진 숭고한 사명을 간직하고 언제나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이들처럼 과학기술의 힘으로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참된 인간들이 있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의 청춘언제는 완공기일을 앞당겨 일떠설것이다.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세차게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현장련합지휘부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의 사상의 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의 도수를 높이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건설장의 산중턱에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자력자강》이라는 대형구호와 표어들을 세우고 곳곳에 붉은기가 휘날리도록 하여 공사분위기를 일신시켰다. 또한 지휘부와 각 려단의 현장방송들을 전개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의 심오한 사상으로 돌격대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한 정치사업을 드세게 밀고나가고있다.

려단별 대형직관판들에 《원수님 명령은 언제나 승리》, 《백두산영웅청춘의 힘 무진막강하다》와 같이 돌격대원들의 심장을 높뛰게 하는 글발들을 써넣어 그들이 언제나 청춘의 기백과 열정으로 공사장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돌격대원들속에서 발휘된 긍정적소행과 미풍을 전투속보를 통하여 매일, 매 시각 기동적으로 소개선전함으로써 전투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백두전역에서 창조된 선군시대 청년돌격정신을 총폭발시켜 당중앙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하여 3호발전소건설장에서는 련일 기적창조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명령관철의 돌격로를 연 결사의 20여일

황해북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황해북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다음해 청년절까지 3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데 대한 당중앙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들어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다. 그들은 3호발전소언제건설에서 결정적돌파구로 되는 가배수로타입공사를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냄으로써 백두산의 영웅청년들이 당중앙의 명령을 어떻게 결사관철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중앙은 영웅청년들을 굳게 믿으면서 다음해 청년절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을 무조건 끝낼것을 명령합니다.》

려단이 맡은 가배수로타입공사는 3호발전소언제건설에서 관건적고리였다. 가배수로타입을 빨리 끝내야 가물막이와 기초굴착을 비롯한 언제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수 있고 공정별에 따르는 계획을 드팀없이 밀고나갈수 있었다. 더우기 북방의 엄혹한 추위가 빨리 오는것과 관련하여 최대한 가배수로타입공사를 앞당겨 끝내야 하였다.

센 물살과 높은 수압때문에 기초구뎅이안으로 수백개의 물줄기들이 뿜어져나와 공사시작부터 장애를 조성하였다. 설상가상으로 3대의 양수기가 련이어 멎어서는것이였다. 현장련합지휘부에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지만 돌격대원들은 기다릴수 없었다.

우리의 보고를 당중앙이 기다린다. 백두산영웅청년들의 기상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자. 현장방송에서 청춘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노래가 쉬임없이 울리고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는 가운데 전투장의 분위기는 삽시에 고조되였다. 물은 목언저리까지 차오르고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내렸지만 참모장 리찬주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서슴없이 물속에 뛰여들었다. 한몸이 그대로 돌이 되고 진흙이 되여 물구멍들을 막아나갔고 바께쯔와 소랭이, 비닐주머니와 안전모까지 동원하여 물을 퍼냈다. 얼음이 둥둥 뜬 물속에서 휘틀을 조립하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에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원쑤들을 전멸케 하던 항일선렬들의 불굴의 기상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돌격대원들의 영웅적기상에 서두수의 거센 물결도 머리를 숙였다. 3일동안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수백개의 물구멍을 막고 기초구뎅이의 물을 모두 퍼낸 돌격대원들은 지체없이 타입전투에 진입하였다. 불과 사흘만에 가배수로바닥타입을 끝내고 이어 벽체타입전투를 힘있게 벌리던 려단은 새로운 난관에 맞다들게 되였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타입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할수 없었던것이다. 이 난관앞에 주저앉는다면 3호발전소언제건설에서 막대한 지장을 받을수 있었다.

돌격대원들은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혼합에 쓸 모래와 자갈을 구워냈다. 타입을 할 부분에도 여러시간 우등불을 피워 알맞는 온도를 보장하였다. 타입을 하면 즉시 톱밥을 두툼하게 덮고 그우에 또다시 우등불을 지폈다. 이렇게 하니 품이 곱절로 들고 돌격대원들의 피로도 극도에 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심장의 불길로 북방의 추위를 몰아내며 한시도 중단없이 타입을 진행해나갔다.

11월 3일, 드디여 마지막타입을 하는 날이 왔다. 5대대와 4대대, 1대대를 비롯한 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이 기세충천하여 백열전을 벌리였다. 찬바람이 맵짜게 불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였지만 당중앙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한 결정적돌파구를 열게 되였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돌격대원들은 누구도 힘든줄 몰랐다.

《더 담으라. 빨리!》

돌격대원들이 호기있게 웨치는 소리가 공사장의 여기저기서 울리고 처녀돌격대원들도 남대원들에게 뒤질세라 맞들이를 들고 힘껏 달렸다.

마지막맞들이의 물탈이 쏟아지고 뒤이어 진동기의 특유한 동음이 청년돌격대원들의 무쇠심장을 흔들며 고르롭게 울렸다. 진동작업을 지켜보는 려단의 전체 청년돌격대원들은 세찬 격정으로 눈물을 삼키며 타입전투의 나날을 돌이켜보았다.

평온한 시기의 2백일, 2천일과는 감히 비할수도 없는 결사관철의 20여일은 백두산영웅청년들의 무진막강한 힘이 어디서 분출되는것인가를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긍지높은 나날이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온 나라의 축복속에 맞은 어머니날

로동당세월이 하도 좋아

강계시 동문동 11인민반에서 사는 안옥희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뜻깊은 어머니날 이른새벽 인풍언덕을 오르는 한 가정이 있었다.

강계시 동문동 11인민반에서 사는 안옥희동무의 가정이였다. 그가 남먼저 인풍언덕을 찾은데는 사연이 있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시당위원회, 동사무소의 일군들이 안옥희동무의 가정을 찾아왔다. 그들은 안옥희동무에게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대표로 참가하게 되였다고 말을 하였다.

안옥희동무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다섯자식을 낳아키우는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자기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한다는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꿈이 아니라 사실이였다.

안옥희동무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고 돌아왔을 때 온 마을이 떨쳐나 그를 축하해주었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다섯자식을 키우며 수고한다고 남편의 직장과 동사무소일군들이 각별히 위해주고 함께 사는 이웃들도 사랑과 정을 합쳐 극진히 도와주었다.

국가에서는 다섯자식을 위해 매달 특별보조금까지 안겨주었다.

정말이지 자식들이 자라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지는것이 어머니당의 은정이였고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운 혜택이였다.

지난 10월 안옥희동무가 동사무소에서 다섯자식들을 위해 매달 국가에서 보장하는 특별보조금을 받아안고 집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특별보조금까지 받으며 자식들을 키우고 있으니 로동당세월이 얼마나 좋고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으냐.》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것을 조국의 미래를 위한 애국사업으로 값높이 평가해주고 어머니들을 단순한 보육자가 아니라 조국의 아들딸,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교양자로 내세워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은정이 너무 고마와 안옥희녀성도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뜻깊은 어머니날 안옥희동무는 아들, 딸들과 함께 인풍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고 마음속으로 맹세를 다지였다.

(다섯자식을 모두 일편단심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받드는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것은 안옥희동무만이 아닌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용암처럼 끓고있는 충정의 맹세이다.

특파기자 동세웅

청년들로부터 받은 꽃다발

혜산편직공장의 오랜 녀성로동자들

혜산편직공장에는 30여년간 한직종에서 성실히 일하는 녀성로동자들이 있다. 단발머리처녀시절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공장에 집단진출하여 수십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일해오고있는 이들의 나이는 어느덧 50고개를 넘어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기대결을 떠나지 않은 이들은 기능공으로, 혁신자로 온 공장종업원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량현숙, 박영숙, 함명실, 박정옥, 강순녀, 김명금, 박향실, 최경애, 김숙전, 유영옥, 리영실, 리영화…

녀성로동자들속에는 로당원도 있고 오랜 당세포비서도 있으며 선동원도 있다.

이들의 많은 자식들이 군사복무를 하고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달려와 어머니들과 함께 기대를 돌리는 처녀들이 적지 않다.

순결한 량심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가고 자식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온 이들을 공장의 종업원들모두가 《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해마다 어머니날을 맞이할 때면 녀성로동자들은 자식들과 공장청년들의 아낌없는 축하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 어머니날을 맞게 될무렵 이들은 공장을 멀리 떠나 백암군 덕포지구 흙깔이전투장으로 달려갔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마음에서였다.

어머니날 아침 흙깔이전투에 참가하고있는 공장청년들이 손에손에 꽃다발을 안고 이들을 찾아왔다.

《어머니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흰눈덮인 대지에 박수갈채가 터졌다.

꽃다발을 받아안는 어머니들의 얼굴마다에는 당과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갈 애국충정의 결의가 어려있었다.

이날 청년들은 어머니날을 맞는 그들을 위해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리고 지금껏 공장에서 30여년을 하루와 같이 일해오고있는 어머니들앞에서 결의를 다지였다.

오랜 세월 당과 조국을 성실하게 받들어온 어머니들처럼 청춘시절을 아니 한생을 참되게, 빛나게 살겠다고.

특파기자

금메달에 비낀 어머니의 행복

원산시 봉춘동 1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영숙동무

어머니날을 맞으며 원산시 봉춘동 1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영숙녀성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의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훌륭한 딸을 키운 어머니를 축하합니다.》

압록강체육단 탁구선수인 막내딸 리미경이가 올해에 진행된 제22차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녀자복식경기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김영숙녀성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고있다.

한가득 안겨주는 꽃다발과 축하의 인사를 받으며 김영숙동무는 막내딸 미경이를 훌륭한 탁구선수로 내세워준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굽을 적시였다.

어릴 때부터 탁구에 취미를 가진 미경이를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훌륭한 선수로 키워준것은 고마운 우리 당과 사회주의제도였다.

딸을 탁구선수로 키우느라 그렇게도 애쓰던 소학교시절의 선생님들과 중학교시절의 지도교원들 그리고 체육단감독들의 모습에서 김영숙녀성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하기에 그는 미경이가 국내,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고 금메달을 받을 때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 참된 어머니가 될 결심을 더욱 깊이 다지군 하였다. 그는 한개 동의 녀맹사업을 맡아보는 일군답게 동안의 녀맹원들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이끌어주고있다.

이 나날 그는 가정에서 성의껏 준비한 물자를 가지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찾아가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해주었다.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인 장한 딸을 둔 기쁨안고 그는 오늘도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도안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달려나가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특파기자

《우리 어머니를 자랑합니다》
—송산케도전차사업소 운전사 장영희동무—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새집들이 기쁨속에 맞은 어머니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 박사 최순복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찍음

《유신》독재부활과 동족대결을 노린 반역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체제통일》야망을 드러낸 교과서《국정화》소동

남조선당국이 민심에 역행하며 강압적으로 벌려놓고있는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의 불순한 목적이 《체제통일》에 있다는것이 여지없이 폭로되고있다. 남조선집권자가 그 무슨 《통일》을 념두에 두면서 력사교과서《국정화》를 계속 강행할 기도를 드러낸것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통일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것은 《강한 자긍심》과 《력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라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력사교과서《국정화》를 통해 저들의 썩어빠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미국의 식민지통치체제의 수치스러운 력사를 그 무슨 《가치》와 《정통성》으로 미화선전하며 그에 기초하여 《체제통일》을 실현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것이다.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은 우리의 존엄높은 사상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그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면서 《체제통일》의 개꿈을 실현하기 위한 용납못할 대결망동이다.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은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감과 무조건적인 거부감으로 일관되여있다. 보수집권세력은 남조선의 중, 고등학교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해설하는 등 《좌편향》되였다고 고아대고있다. 다시말하여 현행교과서들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저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을 미화》하기때문에 그것을 《국정교과서제》로 《정상화》시키겠다는것이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력사교과서내용을 거들며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조국해방위업을 빛나게 성취하고 자주와 번영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사와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해온 공화국의 긍지높은 력사를 외곡하고 비방중상하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마구 헐뜯고있다.

이것이 반공화국악선전으로 남조선사회에 우리의 존엄높은 력사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거부감을 심어주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계책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항일의 애국전통에 깊고도 억센 뿌리를 둔 민족자주의 강국이며 공화국이 걸어온 근 70성상의 로정은 숭고한 애민애족의 력사이다. 그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이어 지금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고있으며 인민들은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하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뻔뻔스럽게도 력사교과서《국정화》로 우리의 눈부신 력사와 현실을 완전히 외곡하고 그 무슨 《자긍심》이니, 《가치관》이니 하며 저들《정권》의 식민지적예속성과 수치스러운 친미, 독재의 더러운 력사를 극구 찬미하려 하고있다. 바로 여기에서 순진한 학생들을 동족에 대한 적대감에 오염된 정신적불구자로, 《체제통일》광신자로 만들려는 흉악한 속심이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은 《유신》독재자의 《승공통일》망령을 되살리는 극악한 《체제통일》광대극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식은 련방제통일이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통해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하였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련방제통일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한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다.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련방제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에 배치되게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을 추구하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력사교과서《국정화》강행의 구실로 《적화통일》이라는것을 들고나오고있다. 보수패당은 북은 《적화통일》을 시도하고 남조선의 진보세력은 그에 대비한 교육을 미리 시키고있다고 고아대고있다. 그들은 력사쿠데타행위를 반대하는 야당과 력사학계, 지식인, 시민들을 졸지에 《적화통일》론자로 둔갑시키고 《북의 지령》에 동조하는 《빨갱이》로 매도하고있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이 떠들어대는 《적화통일》이라는것은 《유신》독재자가 정치적반대파제거와 《승공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떠벌이던 궤변이다. 《유신》독재자는 그 무슨 《북의 대남적화공작》이라는것을 입버릇처럼 외워대면서 《승공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을 제창해나섰으며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 등 각종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을 수없이 조작하여 사회전반에 스산한 공포와 체제대결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력사교과서《국정화》로 《승공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악하였다.

현 남조선당국자가 그 전철을 밟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북의 적화통일에 대응》한다고 고아대며 강행하고있는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에는 《유신》독재자가 집요하게 추구한 《승공통일》야망이 그대로 깔려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현 보수당국의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에 대해 《박정희군사〈정권〉시기의 반공판박이》라고 비난하고있겠는가.

제 속 짚어 남의 말 한다고 남조선당국이 생뚱같이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적화통일》이라는것을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의 방편으로 써먹고있는것은 저들의 골수에 들어찬 《체제통일》야망을 스스로 폭로하는것이다.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은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개선,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범죄적인 대결란동이다.

북남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북남로동자축구대회가 성과적으로 치르어진 지금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겨레의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렬하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따라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것을 간절히 바라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악랄하게 역행하면서 동족의 존엄높은 체제를 허뜯고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적대적분위기를 고취하면서 반동적인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으로 《체제통일》망상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집권세력이 말끝마다 《통일시대대비》니 뭐니 하고 떠들어온것이 다름아닌 《체제통일》흉계의 발로였다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자기들은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였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자들인가.

민족의 미래를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해내외의 온 겨레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력사교과서《국정화》소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일치하게 성토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는 《체제통일》의 어리석은 개꿈에서 깨여나야 한다.

리 효 진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힘차게 싸우자

재일동포들 남조선당국의 력사외곡책동에 항의

남조선보수당국의 력사외곡책동을 규탄하는 투쟁이 확대되고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재일동포들의 항의투쟁이 전개되고있다.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과 《재일한국청년동맹》 성원들이 7일 도꾜도 신쥬꾸구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 시위와 선전활동을 벌렸다.

재일동포들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력사쿠데타를 멈추라!》, 《친일미화, 독재찬양의 력사교과서 반대!》, 《반통일세력의 영구집권음모를 저지시키자!》고 웨치며 남조선당국의 독재통치를 단죄하였다.

그들은 《유신》독재부활을 노리는 남조선당국의 력사외곡책동을 막아낼것을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호소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9일 서울 중구에서 민중총궐기투쟁을 위한 선포식을 가지였다.

선포식에서 발언자들은 로동개악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벌써부터 로동자들을 대량해고하려고 시도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농촌도 수십년간의 개방정책때문에 사람 살지 못할 곳이 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빈민들 역시 극도에 이르는 당국의 탄압때문에 더는 살수가 없어 자본만을 위해 일하는 《정권》을 몰아내는데 앞장설 의지를 피력하고있다고 밝혔다.

최근 력사교과서《국정화》사태만 보아도 당국이 《유신》회귀를 피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를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영원히 찾을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이번 민중총궐기가 로동자, 농민, 빈민의 생존권을 위한 당연한 투쟁으로서 미친 질주를 그만두라는 민중의 분노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중의 분노가 총궐기로 분출되게 한 책임은 분통청와대에 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집권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그가 거대한 민중의 분노를 피할수 있는 마지막기회가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세월》호참사때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에 맞서 힘차게 싸워 살길을 찾아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선포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정부》종합청사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남조선언론이 강조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남조선 각계의 민중총궐기투쟁을 지지하여 9일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현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14일 민중총궐기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민주로총, 전농을 비롯한 50여개 부문별단체와 300여개의 지역단체들이 로동개악철회, 쌀수입중지, 력사교과서《국정화》폐기, 반공화국적대시정책폐기 등 11대요구를 내걸고 서울 광화문에 모인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글은 로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사회모두가 한 목소리로 사회의 변화를 선언하였다는데 이번 투쟁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중총궐기는 지난 3년간 현 《정권》의 악정에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라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는 내란음모조작사건과 공안통치로 무마시켰다.

수백만명이 참여한 《세월》호진상규명서명지도 휴지조박이 되였다.

민중이 반대하는 력사교과서《국정화》도 온갖 비법적방법으로 강행하고있다.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정권》에 맞서 민중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민중총궐기로 모아졌다.

11.14민중총궐기는 현 《정권》에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다.

민중총궐기가 현 《정권》하에서 절망에 빠진 민중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하수인의 《창발성》

얼마전 남조선경찰당국이 말썽많은 《국정교과서》문제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들으란듯이 한바탕 으름장을 놓았다. 당국에 고용된 교과서집필진으로부터 신변보호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하며 그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들이겠다는것이다.

가관은 《국정교과서》집필에 코를 들이민자들에 대한 그 어떤 협박이나 폭행도 없다는데 있다. 하기는 당국이 어용집필진을 뒤고방에 숨겨놓고 그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있으니 그들에 대한 위협자체가 있을수 없는것이다.

오히려 로골적인 신변위협은 보수패거리들이 하고있다.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여 1인시위 등 평화적인 투쟁을 벌리는 사람들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위협공갈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경찰은 그에 대해서는 모르는척하면서 오직 《국정화》반대투쟁에 나선 사람들에게만 으르렁거리고있다. 그런즉 남조선경찰의 처사는 권력에는 무작정 아부하고 인민에 대해서는 칼부림밖에 할줄 모르는 제복입은 폭력배들의 기막힌 《창발성》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난해에도 경찰패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폭거가 있은 후 제잡담 《있을수 있는 기습공격》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재판관들을 특별경호대상으로 정하고 그들의 집주위에 삼엄한 봉쇄의 울타리를 쌓아 인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었다.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며 시정배들의 구린내나는 몸뚱아리를 보호해주려고 이리뛰고 저리뛰는 남조선경찰의 너절한 행실에 사람들은 침을 뱉고있다.

남조선경찰이 아무리 보수당국의 사나운 사냥개가 되여 날뛰여도 매국반역책동에 견결히 항거하는 민심을 절대로 돌려세울수 없다.

충고컨대 거적으로 바람을 막겠다는것만큼이나 어리석은노릇을 작작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허 영 민

남조선의 시장,도지사들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배격

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력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

남조선의 시장, 도지사들이 력사교과서《국정화》에 부정적립장을 표시하였다.

한 관계기관이 전지역의 시장, 도지사 1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11명이 력사교과서《국정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한다. 그들은 력사교과서《국정화》에 동의할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기만적인 《대화》타령, 변함없는 대결야망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 《협력》, 《당국회담》에 대해 자주 운운하면서 그것이 《평화통일》에로 이어지게 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얼마전에는 《당국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검토》하고있다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저들이 대화성사에 적극 나서고있는듯이 생색을 냈다.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에 그처럼 관심이 있다면 응당 그것을 가로막는 동족대결소동부터 중지하는것이 옳은 처사이다.

우리는 지금껏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할 일념밑에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북남사이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이 조성되였던 지난 8월의 위기상황이 수습되고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게 된것도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하지만 8월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는 이렇다 할 전진을 이룩하지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사태가 합의이전에로 되돌아갈수 있는 위험까지 조성되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의 장애를 조성하는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함의정신에 배치되게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계속 강화하고있다. 이것이 북남대화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기본요인이다.

최근에만도 남조선에서는 《북인권법》제정놀음과 외세와의 북침전쟁모의, 무력증강책동들이 광기적으로 벌어졌는데 이것은 대화분위기를 해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만을 고조시키고있다.

말로는 《대화》와 《협력》을 곧잘 떠드는데 하는것이란 전부 대화와 협력의 흐름을 가로막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망동뿐이니 누가 대화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의지를 믿을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의 적극적추진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 한다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그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그 무슨 《통일준비위원회》회의라는것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집권자는 《북핵문제》를 운운하며 우리를 또다시 질고들었는가 하면 《통일》이니 뭐니 하며 《제제통일》기도를 드러냈다. 한편 외세와 뻔질나게 마주앉아 반공화국《제재》와 《인권》소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청탁하는 추태도 부리였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계의 전망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북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을 계속 자극하는 집권자의 처사는 대화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을 퍼붓고있다.

북남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집권자부터가 이러하니 그야말로 당국자들도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얼마전 해외에 나가 《북이 지금도 핵, 미싸일능력을 고도화》하고있다고 아부제기를 치면서 국제사회가 《북의 핵, 인권》문제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고아댔다. 군부호전광들은 그들대로 《북도발》설을 요란히 내돌리면서 《경고메쎄지》니, 《억제》니 하며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지어 남조선집권세력은 력사교과서《국정화》책동에 분노한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투쟁마저 《북지령》에 의한것으로 광고하면서 우리를 마구 헐뜯음으로써 북남사이의 불신을 고조시키고있다. 이것을 놓고서는 누구도 남조선당국자들의 행동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것이라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의 대결야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그 무슨 《대화》와 《당국회담》에 대해 떠드는 남조선집권세력의 골통에 과연 무엇이 꽉 들어차있는가 하는것은 지난 2일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내뱉은 망발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날 김무성은 《통일대비》에 관한 《역할》을 운운하면서 《북체제붕괴설》이라는것을 공공연히 떠벌이였는가 하면 나중에는 《북붕괴》가 《통일》이라고 골수에 배긴 《체제통일》망상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남조선당국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대화와 협력으로 북남관계개선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악랄하게 도전하며 반공화국도발과 외세와의 북침전쟁공조, 《제제통일》책동에 미친듯이 날뛰고있는 판에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북남사이의 대화는 동족대결소동을 가리우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스스로의 망동으로 저들이 떠드는 《대화》는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것이 아니라 긴장상태가 나날이 악화되고있는데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간판일뿐이라는것을 날날이 드러내보이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드는 《대화》니, 《당국회담》이니 하는것들은 각계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당국자들이 《대화와 협력》, 《남북교류의 증진》을 떠들기에 앞서 반공화국대결정책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대화문제와 관련하여 여론을 오도할것이 아니라 저들의 반공화국대결망동이 대화를 가로막고있다는것부터 알아야 한다.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대결소동에 광분하는 남조선당국의 이중적태도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다.

본사기자 장 윤 남

과거범죄의 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 국가적책임이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 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의 반만년력사를 통강내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우기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해낸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

고금동서 그 어느 시기, 그 어느 나라에도 총칼을 비껴들고 대포를 끌고와 《조약》체결을 강압하고 국왕의 서명도 국새날인도 없는 빈 종이장으로 한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여 식민지로 만든 례는 일찌기 없었다.

일제는 조약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무력으로 조선민족을 억누르며 장장 40여년동안 우리 인민에게 방대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주었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전쟁마당과 고역장에 강제련행하여 총알받이로, 노예로 내몰고 100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노리개로 끌어다 짐승보다 못한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조선의 말과 글은 물론 성과 이름, 옷과 머리형태에 이르기까지 민족적인 모든것을 없애버리고 지어는 조선민족의 기를 꺾어버리겠다고 수많은 산봉우리들에 쇠말뚝까지 박아놓고 우리 민족을 송두리채 말살하려 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범죄의 력사, 가해행위에 대하여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있는것이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가 조선사람들이 원한것이였다느니, 조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느니 하는 궤변으로 국토강탈행위를 정당화하고 강제련행된 조선청장년들을 《자원》한 사람들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인신매매피해자》로 매도하며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을 파렴치하게 미화분식하고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의도적으로 확대하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탄압과 인권침해행위를 감행하고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요란하게 떠들며 전쟁법안인 《안전보장관련법》을 강압채택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일본이 어떻게 해서나 과거청산을 기어이 회피하고 또다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서서 지난날의 옛 지위를 되찾으려 하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현실적으로 패망한지 70년이 넘도록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있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다.

일본은 시대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렬강들의 각축전에 시달리며 곡절과 수난을 겪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현시대는 허술한 종이 한장으로 한 나라의 국권을 유린한 구시대가 아니다.

더우기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한 청산은 회피한다고 해서 모면할수 있고 뻗댄다고 하여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가 자기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것은 어길수 없는 법도이며 이것을 어기면 천벌을 받기마련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를 올바로 청산하는것이 회피할수 없는 법적, 국가적책임일뿐아니라 일본을 위한것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주체104(2015)년 11월 16일
평 양

강도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악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는 이 《조약》을 《법적근거》로 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을사5조약》이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것은 세상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비법적인 침략문서가 날조된 때로부터 110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도 그의 《합법성》과 《적법성》에 대해 운운하면서 그것을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근거》로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이 자기의 과거죄악을 부인하기 위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력사는 절대로 외곡될수 없다.

력사적사실자료들은 일제의 날강도적인 《을사5조약》날조행위와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을사5조약》은 일제가 군사적강권을 동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협잡문서이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규정짓는 기본조건을 강제성으로 보고있다. 이로부터 《근대국제법》과 《조약법에 관한 윈조약》(제51조)에서는 국가 및 국가대표자에 대한 협박과 강제의 결과 이루어진 모든 조약은 《어떤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을사5조약》은 강압과 협박으로 날조된 《조약》으로서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없는 휴지장에 불과하다.

당시 고종의 완강한 반대로 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게 되자 일제는 강도적인 《을사5조약》에 조금이라도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선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참으로 일제가 강제력을 발동하여 《을사5조약》을 날조한것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례한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하기에 량심적인 국제사회인사들은 모두 《을사5조약》의 강제성을 시인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프랑스학자 프란시스 레이는 1906년에 쓴 글에서 《11월의 조약은 정신적, 육체적폭력으로써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된것》이며 《일본군의 압력에 의하여 조약의 조인을 강제당한… 특수한 사항으로 하여 나는 주저없이 1905년조약의 무효를 단언한다.》고 규탄하였다.

근대국제법시기부터 현대국제법시기에 이르기까지 《을사5조약》이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 주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있다.

1935년의 《하바드보고서》에서 《을사5조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근거로서 조약체결을 위해 《일본전권공사가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대한제국황제와 대신들에게 가한 강압》을 든것 그리고 1963년의 제15차 유엔국제법위원회에 제출된 《월더크의 보고》에서도 《을사5조약》을 《강박이나 위협을 가한 행위》의 결과로 규정하고 《절대적무효》라고 지적한것 등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이렇듯 《을사5조약》은 《협상》과 《조인》에서 평등과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강제로 날조된것이므로 그것은 국제법에 따라 불법, 무효로 된다.

《을사5조약》은 합법적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허위문서였다.

《을사5조약》은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황제의 서명, 국새날인도 없으며 조약체결에 필수적인 전권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되여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고종은 시종일관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으며 결과 일제는 《을사5조약》에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조약이 쌍방간에 체결되여 정식 효력을 보려면 반드시 국가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조선봉건정부의 법령과 국제관습법에 비추어보아도 어길수 없는 원칙이였다.

1894년에 조선봉건정부가 제정한 《공문식》(법)에는 《국서와 조약비준은 황제가 서명한 다음 국새를 찍는다.》고 규정되여있다. 《만국공법》 제406장에도 조약은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다고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을사5조약》은 당시의 국내, 국제법에 비추어보아도 비법문서였다.

《을사5조약》에는 조약의 이름조차도 없다. 서문과 조항들만 있을뿐이다. 관례상 조약명이 밝혀져있지 않으면 조약서가 아니므로 애당초 조약체결대방국가와의 협의에 제출할수 없으며 서명할수도 없다. 때문에 조약명도 없는 조약아닌 이 《조약》이 일본측에서는 《한일협약》으로, 조선측에서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5조약》이라고 불리우게 되였던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을사5조약》이 철저히 일제가 총칼을 휘둘러 날조해낸 조약 아닌 날치기허위문서이며 그 어떤 법적타당성도 가질수 없는 불법무효한 《조약》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인류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강압과 사기협잡 등 파렴치하고 비렬한 방법으로 국제조약을 날조하여 남의 나라에 대한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강도의 무리들을 알지 못한다.

《을사5조약》이 명백히 불법무효함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이 《조약》을 내들고 국권을 강탈하고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였다. 일제가 조선강점기간 우리 인민에게 입힌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는 말이나 글로써는 다 옮겨놓을수 없다.

일본이 강도적인 침략행위로 조선인민을 노예화한 죄, 조선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억제하고 조선의 분렬을 초래한 죄, 패망후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가담한 죄 등 그 죄악을 꼽자면 끝이 없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입힌 원한의 상처는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패망 70년이 되는 올해에 과거에 대한 청산이나 반성은 고사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던 공장, 탄광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함으로써 특대형반인륜범죄의 유물을 《세계문명에 이바지한 산업혁명유산》으로 외곡미화하였다. 그런가 하면 집권자의 《전후 70년담화》라는데서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문구까지 빼버리고 과거죄행을 정당화해나섰다. 이것은 피해자인 전체 조선민족의 참을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덮어버릴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우리 나라에 끼친 모든 죄악을 단단히 계산해두고있으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알고 하루빨리 자기 할바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안 철 권

ㄱ-51181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